

아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주대학교 사람들



Healing





## 아름다운 만남을 기다리며

무더운 폭염을 펼쳐냈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런던올림픽이 개최되어 우리 선수들의 감동적인 승리를 보면서, 승패를 넘어선 삶의 이야기에 감동받으면서 열대야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이 메달로 바뀔 때마다 환호했고, 경기를 마친 후 스승과 제자가 보여주는 뜨거운 포옹은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비 인기종목 선수들의 눈물에 가슴이 저리고, 그들이 헤쳐 왔을 과정이 또 다시 안쓰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면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폭염과 흥분과 환희가 뒤굴었던 올 여름, 우리 아주동산 내 풍요로운 녹음은 한낮에도 푸르다 못해 질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아주의 학생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 독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또 연구실, 실험실에서 흘리는 연구자와 학생들의 구슬땀, 면학의 열기로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도서관……. 이 모두가 올 여름 아주동산의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국내의 여러 곳으로 자신의 젊음을 즐기고 왔을 겁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조속한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보다는 과정 그 자체, 열정을 보게 됩니다. 완속하지 못한 젊음이 만들어내는 짧은 결과보다 길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헤쳐 가는 수련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대학에는 학문이 목적인 학생, 실용을 습득하려는 학생,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앞서 간 이들의 경험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가을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 아주동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스승이 아름답게 만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총장 안재환

안재환



Ajou University Magazine 2012 Autumn Vol. 3

# 아주대학교 사람들

## c o n t e n t s

### Special Theme

- 06 **좌담**  
흔들리는 청춘,  
대학이 무엇을 도울 것인가
- 12 **Special Column 1**  
김성욱 교수
- 14 **Special Column 2**  
장병윤 교수

### Story of Ajou

- 18 Research 1
- 20 Research 2
- 22 Prof. Column
- 24 Passion
- 28 Photo Sketch
- 30 Zoom in
- 32 Alumni Story
- 34 Focus
- 39 Admission Column

- 서형탁 교수
- 김주민 교수
- 김민규 교수
- 강규철 동문
- 2012 아주 국제여름학교
- 대학발전본부
- 김상민 국회의원
-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 김경래 입학처장

### Ajou Univ. News

- 16 People
- 26 Event
- 36 Award & Selection
- 37 News Brief
- 38 Medical Center
- 40 Donation News

어느 교수의 기막힌 문구 덕에 '청춘은 아픔'이라는 명제를 환기할 수 있었다. 그럼, '아픔'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니 무엇이어야 하는가! 치유는 수동적인 처방이기보다는 치유의 대상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며, 어떤 환상적인 체험이기보다는 매우 논리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이 시대 청춘에게 필요한 치유법은 더 이상 진통제가 아닌 아픔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외과술일지도 모르겠다. '나의 아픔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힐링(Healing)에 앞서 내 속의 또 다른 나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다. 아픔을 아픔으로, 상처를 상처로 바라보는 차가운 지혜. 치유는 그 정갈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고, 또한 마무리 된다.

이주대학교 사람들 9월호에는 이주대생들을 향한 스승들의 애디는 마음과 진지한 대화를 담았다. <좌담>에서는 김은정(심리학과), 임기영(의학과), 임석철(산업공학과), 정경훈(영문학과) 교수가 이주대생들의 정서를 분석하고 그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며, <Special Column>에서는 이주대생들에게 전하는 김성욱(건축학과), 장병윤(경영학과) 교수의 조언을 실었다.

*How poor are they who have not patience! What wound did ever heal but by degrees.* -William Shakespeare-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천천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윌리엄 셰익스피어 -

# Healing





# 흔들리는 청춘, 대학이 무엇을 도울 것인가

김은정(심리학과), 임기영(의학과), 임석철(산업공학과), 정경훈(영문학과) 교수

이주대 학생상담센터의 '2011년 이주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를 보면 재학생들은 장래 · 진로(29%)를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학업(22%), 경제적 문제(15%)가 그 뒤를 이었다.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장래 · 진로(12%), 경제적 문제(12%)가 가장 고민된다고 답했다. 이주대학교 학생들의 고민과 아픔을 스승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 진지한 대화를 들어본다. / 정리 이슬(홍보실)





정경훈(영문학과) 교수

라캉(Jacques Lacan)은

‘힐링 Healing’ 이란 없다고 말했다.

행복과 불행이 모두 순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불행하다고 느낀 그 순간이 지나면 곧 행복이

찾아오니 담담히 그 기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삶의 방향,

비전을 만드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했으면 한다.



임기영(의학과) 교수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낭만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요즘 대학과 대학생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는가?**

● 정경훈 매해 초 신입생들과 얘기하다보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다. 종종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부모님, 학교와 사회, 매스 미디어가 만든 로봇 같다”고 얘기하곤 한다. 2학년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업과 학점 등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 임기영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 학생들은 불안을 넘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노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보다 부모나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나서, 부모가 하라 해서 했는데... 등등 남을 탓하는 표현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 학생들은 사춘기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사춘기가 실종된 세대다.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사춘기를 억누르고, 대학에서는 취업 때문에 사춘기를 억누르다 보니 정신적인 성숙기 없이 젊음이 지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김은정 요즘 학생들을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흔히 ‘짱난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불안과 분노, 수치심 등이 뒤섞여 있다. 고등

학교 때까지 오로지 입시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기 감정에 대해 찬찬히 둘러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입학하자마자 ‘취업’이라는 명제에 억눌려서 마치 취업이 삶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살아간다. 남들이 다 취업 준비를 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세워지기도 전에 덩달아 구직전선에 뛰어든다.

● 임석철 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한때 (어릴 때) 소위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진학할 수 있는 똑똑한 학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결국 그들 중 대부분이 ‘여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취업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임석철(산업공학과) 교수

교수들이 마음을 써준다면 학생들은 강의시간에도 '힐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의 어떤 교수가 강의 중에 "모든 꿈이 이뤄진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자신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저 하지 말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당시 낙담에 빠져있던 한 학생이 이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



김은정(심리학과) 교수

사회 분위기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기댈 곳은 점점 더 줄어들어 가는 것 같다.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진지 오래고 동아리나 학회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갈 여유도 별로 없다.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임기영** 대학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학생을 다그치고 몰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다독겨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학이 일꾼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다. 교수들은 논문 쓰기 바쁘고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다. 대학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낙오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 **정경훈** 교수와 학부모, 사회와 언론이 학생들을 들볶고 있다. 일부 학생들을 보면 부모가 수강신청에까지 관여하고 학점도 관리한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상대평가 제도가 존재하다보니 교수들은 학생들 평가에 급급해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 바쁘다. 평가에 치우치다보면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도 사라진다. 학생들이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여길 수 있는 배포를 가지도록 교수와 학부모가 도와야 한다.

● **임석철** 대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의다. 교수들이 마음을 써준다면 학생들은 강의시간에도 '힐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든 꿈이 이뤄진다는 말

은 거짓이다. 그러나 자신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주저 하지 말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시 낙담에 빠져있던 한 학생이 이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고 한다. 지식 같은 우리 학생들 중 누군가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움매어 있을 수도 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들 자신이 경험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분명 어떤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혼자 끙끙 앓기만 하는 학생들이 더 문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해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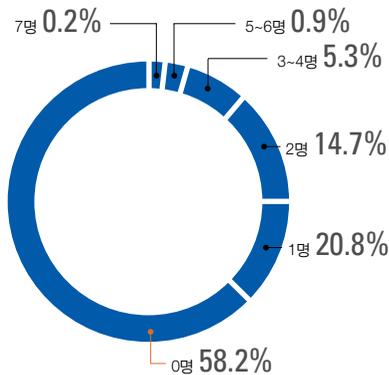
● **김은정** 학교 안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아주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끔,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동기부여 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아주강좌'가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강사 초빙료가 부족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모셔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인문학, 고전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치기보다 종합관 로비 같은 빈 공간을 북카페로 만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사색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임기영** 요즘 학생들은 6년(의대)동안 같이 학교를 다녀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 서로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수가 없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왜 의대에 진학했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글을 쓰게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학생들이 동료들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정규 수업 시간의 범위 안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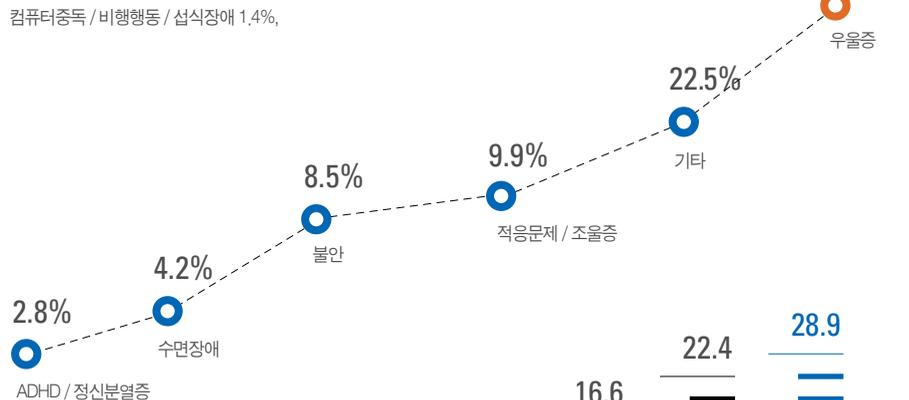
● **정경훈** 학생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상담센터의 문턱 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치료보다 발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 **임석철** 유혹의 덫이 많은 세상이다. 다단계, 사채까지 대학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덫에 빠져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치유'를 넘어 '구조'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학생구조센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나를 도와줄 구조의 손길이 학교 안에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창구가 실제 운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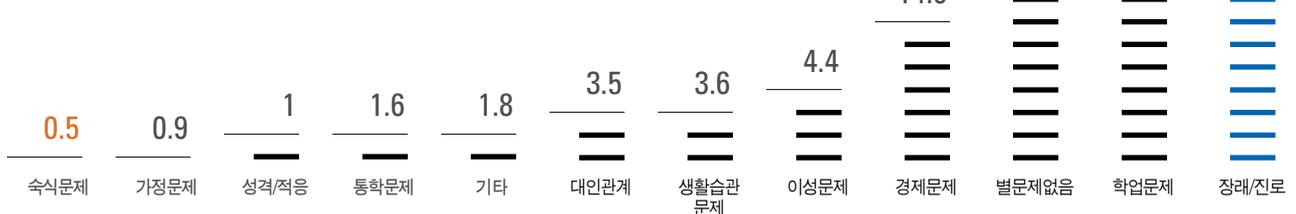
교내에서 가까이 지내는 교수님의 수



외부 전문 상담기관 상담 경험 유무와 상담 이유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 제목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시기는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김은정**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요즘 학생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인가 여부 보다는 연봉과 안정성, 처우 등을 먼저 따져 본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속한 세대나 그 위의 세대는 평생 1~2개의 직업을 경험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그만큼 보장되기 어렵다.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진

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자기 적성에 대한 탐색 없이 성급히 진로를 결정한다면, 직장을 옮겨야만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매우 심각한 불안과 방향을 겪게 될 것이다. 직업을 찾기에 앞서 대학 시절에 나를 돌아보고 탐색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한다.

● **임석철**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만의 선명한 꿈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신입생 세미나 때마다 학생들에게 10년 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과제를 낸다.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 나의 꿈이다. 꿈을 찾으면 청춘은 살아난다.

● **임기영**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신과 환자는 치료효과가 높다. ‘힐링’도 마찬가지다. 학생 자신이 문제가 있음에도 없다고 인식한다면 힐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힐링이 필요한지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정경훈** 자크 라캉이란 정신분석학자는 힐링이란 없다고 말했다. 행복과 불행은 순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그 순간이 지나면 곧 행복이 찾아오니 담담히 그 기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자크 라캉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미래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삶의 방향, 비전을 만드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했으면 한다.

8월 29일 아주대학교 승재관 휴게실에서 정경훈(영문학), 임기영(의학), 김은정(심리학), 임석철(산업공학) 교수가 ‘힐링(Healing)’을 주제로 아주대생들의 고민과 아픔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생상담센터**

진로 · 성격 관련 심리검사는 물론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심리를 전공한 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위치 : 신학생회관 412호 / 문의 : 031-219-2191-2

**사회진출센터**

적성과 진로탐색에 대한 1대1 상담은 물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위치 : 신학생회관 1층 / 문의 : 031-219-2041-5  
정보 : job.ajou.ac.kr

**성폭력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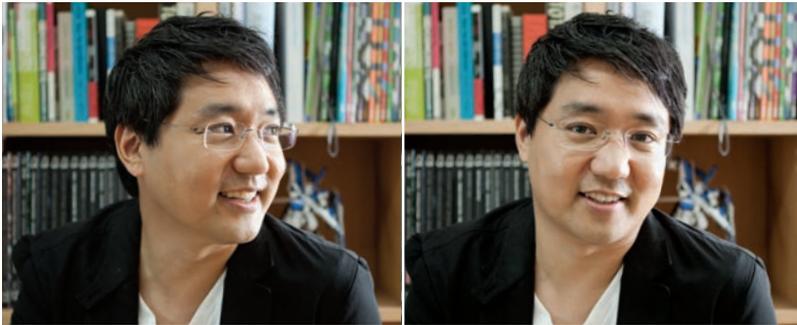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의료 ·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성교제나 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위치 : 신학생회관 418호 / 문의 : 031-219-1745  
help@ajou.ac.kr



# 힐링이 필요한 그대에게

김성욱(건축학과) 교수



작년 초췌 인가? TV 유명 토론 프로에서 패널 중 일부가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의지가 없다, 고전을 공부하지 못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었던 적이 있었어. 뭐 나도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미안하지만 꽤 동의하는 편이기는 한데, 내 동의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 “어쩌라고? 난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유래 없는 스펙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이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해도 지켜온 어학 성적, 학점, 봉사활동 경험, 각종 자격증, 포트폴리오 및 취업테크닉 등 모든 것들이 취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대학생활 동안 완성해 놓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

순간순간 선택과 책임도 네 몫이고,  
영광과 수도도 다

네가 짊어져야 하는 거야.

멘토나 롤모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지

네 인생을 결정해주는 건 아니야.

야 한다고들 말해. 그렇다고 취업이 보장되느냐, 그런 것도 아닐걸? 단지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 ‘누가 이래서 붙었네, 저래서 떨어졌네’라는 소문만 확대 재생산되고, 결국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게 되지. 학생들은 그 불안함 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덜 불안한가’에 집중해. 각자의 꿈이 어떻든 ‘삶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말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일, 그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워야만 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쯤 얘기하면 ‘교수님이 지금 취업조언을 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각자 모두 상황이 다르고 고민이 다를진대 이 지면을 빌어 뭉뚱그려 조언하는 일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잘 알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자신감’이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대학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왜 이리 많은 걸까? 결국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인지 판단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바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여유를 즐기거나 시간 죽이는 일에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니, 인생의 황금기라는 청춘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 말이나 온 김에 슬픈 얘기 좀 더 하자면, 하기 싫은 일들 실패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 희희낙락할 수 있는 어떤 단계란 별로 존재하지 않아. 대기업에 입사하든, 의사가 되든, 건축가가 되든, 사업체를 꾸리든, 결국 성공에 필요한 또 다른 요구조건들이 학생 시절과 똑같이 찾아오지. 서점에 가봐. 온갖 처세술, 어학, 소통의 기법, 발표기술, 상대방을 사로잡는 법, 돈 버는 법, 올바른 생활습관과 같은 수많은 책들이 독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볼모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닥치고 지금의 고통을 다 이겨내면 겁나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긴 하지만, 알아서 들어.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나중이라고 즐겁겠어? 물론 힘든 거 피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알아 들을 수 있겠지?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 순간순간 선택과 책임도 네 몫이고 영광과 수모도 다 네가 짊어져야 하는 거야. 멘토니 뭐니 요즘 강조되는 롤모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지 네 인생을 결정해주는 건 아니야.



너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 과장 같겠지만 절대 과장이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번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래.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내가 재미있는 것, 내가 위안을 얻는 것, 나의 아드레날린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앞으로 겪고 싶은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당장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즐기게 될 거고 결국 네 미래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거야. 네가 하는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돌아와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단! 모든 기준은 스스로 세우는 거야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아 분위기가 있는 창가에서 마시는 술과 시험 전날 마련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빠지면 치사해 보일까봐 마시는 술은 분명히 다를 거야. 비록 잘하지 못할지라도 외국 친구와 아무 문제없이 소통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집중하는 외국어 공부와 취업에 꼭 필요하기에 억지로 하는 외국어 공부는 분명 다를 거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과, 이력서에 봉사실적 한 줄을 더하기

위해 나가는 여행은 확실히 다르지. 네 청춘의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 미래에 네게 다시 돌아와 너의 커다란 자산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좋겠다. 불안하다고? 그래서 자꾸 '자신감'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결국 그걸 존중하고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 여건이 엉망인데 쉽게 얘기한다고? 맞아. 그건 사실이고, 네 잘못도 아니야. 그렇다고 남 탓하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맘에 안 드는 것은 나중에 네 스스로 투표든 뭐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바뀌어나가도록 하고 현재의 틀 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미래를 그려보라고.

쉽게 말한다고? 알아. 인생이야 당연히 쉽지 않지. 하지만 네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영화 <룩키>를 보면 연로한 룩키가 아들에게 인생에 대해 이런 말을 해 줘.

It's no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can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인생은 네가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게 얻어맞고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발 한발이 네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얻어맞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거야. 건투를 빌어.

# 나의 청춘 불안 극복기

장병윤(경영학과) 교수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20대 대학생도 30대 직장인도 마음 속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한 가지로 ‘두려움’을 꼽았다”라는 자료를 보았다. 이 설문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의 주제는 ‘진로/인생설계(61.7%)’, 그 다음 ‘취업/승진’ 등 직장 문제(51.3%), 그리고 ‘연애/결혼(45.4%)순으로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이 결과는 과거 나의 고민들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현재 나의 고민도 이 중에 있다. 현재 우리 아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도 ‘진로’ 및 ‘인생설계’ 그리고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경험이 아주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적는다.

**‘삶의 철학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 우연히 서점에서 산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20대 특히 대학생활은 아주 어렵게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첫 학기는 적응을 잘 못해서 ‘학사경고’를 받았다. 학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 선동열 선수의 방어율보다 낮았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대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지 몰랐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물론 계속해서 학사경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학사경고를 계속 받으면 학교를 강제적으로 못 다니게 되니까 1학년 2학기에는 불안감에 휩싸여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이때 당시 기억 나는 과목 중 하나가 ‘일반화학’이다. 워낙 화학에 소질이 없고 흥미를 못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밤새워 공부해서 ‘A’ 학점을 받았다. 이때 얻은 교훈은 아무리 어렵거나 싫은 과목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의 경우에는 어렵거나 싫어하는 과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따라가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큰 도움이 되었다. 경영학 박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어느 대기업은 이 책을 신입사원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다. 어쨌든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다. 여러분도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자기계발서, 종교관련 분야의 서적들도 지금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의 근본 바탕이 되었다. 그중에 특별히 도움을 준 서적들을 소개하니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 아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책이 이중에 있을지. <싸이코 싸이버네틱스 2000> 보브 좀머, 마크 팔스타인, <성격개조와 자기표현> 김한규,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 지글러, <순전한 기독교> · <고통의 문제> C. S. 루이스, <자기경영노트> 피터 드러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등이다.

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불안들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각자에게 맞는 여러 방법들을 스스로 찾는다면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책을 읽고 사색을 했기 때문에, 또 운동을 많이 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현재에도 불안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나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방법들을 통하여 과거보다 더 잘 견디는 것 같고 이런 불안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이나 목표에 대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젊고 이 젊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안 때문에 여러분의 젊음을 희생하지 말고 좀 더 크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젊음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상황에 직접 부딪쳐 봄으로써 여러분의 몸의 세포가 깨닫게 될 때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지식 또는 불안 극복 방법들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이나 위기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불안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익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이를 위해서 좀 더 용기와 패기, 그리고 정열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앞으로의 청춘을 보내길 바란다.



다행히 대학 1학년 2학기에는 학사경고를 면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일반화학' 과목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이다. '삶의 철학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친구나 선배와 상의하고, 부모님께 여쭙어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시 나도 친구와 상의했던 것 같고, 선배들과 이야기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은 얻을 수 없었고, 우연히 서점에서 산 책 한 권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여러 불안들 또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체력, 즉 육체적 건강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체력이 좋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웬만한 문제들이 생겨도 특별히 불안해 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대학교에 와서는 과거처럼 운동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이전의 연구소나 유학생할 중 추구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심할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나는 정말 행복했었고 '인간으로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격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자

인물동정

# People

## 2012 정년퇴임 교수 특강 및 2학기 신입교수 임명식



2012학년도 8월 정년을 맞아 아주대학교를 떠나는 교수와 아주대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원들의 특강과 임명식이 열렸다. 2012년 1학기 박경주, 이재의, 최기련, 최진호 교수가 정년을 맞았다. 최진호 교수는 8월 24일 종합관에서 '사회학도로서의 삶'이란 주제로 열린 정년기념식과 특별강연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주제로 현직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를 펼쳤다. 이재의 교수 특별강연은 8월 20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년 교수들의 개인별 사정과 고사로 당초 학교 차원에서 계획했던 공식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소속 대학별로 의미 있는 정년기념식과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신입교원 임명식은 8월 23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김의환 교수를 포함한 11명의 교수들이 안재환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교원 여러분들이 교육과 연구에서 보여주실 열정과 성과는 여러분은 물론, 아주대학교로서도 무척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다짐과 약속들이 아주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년퇴임 교수 연혁**

**박경주 교수**

연세대학교 졸업/Rutgers University 재무학 석사/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회계학 박사/아주대 경영학부 교수(2004)/경영대학원 부원장(2009-2011)

**이재의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서울대학교 응용화학 석사/인하대학교 촉매공학 박사/아주대 공업화학과 교수(1976)/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장, 대학원 화학공학과장, 화학공학과장(1985-1993)/화학, 생물공학부장(1995-1999)/산학연공 동기술연구소장(1997-2009)/연구정보처장(2000-2002)/산학협력단 중소기업지원실장(2004-2006)/창업보육센터장(2011-2012)/화학생명공학과장(2011-2012)

**최기련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University of Grenoble 2 에너지경제 석,박사/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1994)/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소장(2000-2009)/고등기술연구원장(2002-2003)/산학협력단장(2004-2006)

**최진호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Brown University 인구/도시사회학 박사/아주대 사회학과 교수(1990)/사회과학과장(1991-1993)/사회과학대학장(1995-1997)/학생처장(1996-2000)/사회과학대학장(2000-2002)/국제대학원장(2004-2008)/대학원장(2010-2012)

**신임교수 프로필**

**신귀암(환경공학과/물환경-상수도-공학)**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박사/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연구조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 조교수

**김욱(응용화학생명공학과/생명공학)**

경희대학교 졸업/평주과학기술원 석,박사/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원

**구형일(전자공학과/자동제어,비전,로보틱스)**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퀵컴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호(경영학과/전략경영)**

삼육대학교 졸업/서울대학교 석사/Boston University 박사/Korea BSC Consulting Senior Consultant

**양성병(e-비즈니스/MIS)**

서울대학교 졸업/한국과학기술원 석사, 박사/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시간강사/한성대학교 전임강사

**유재인(금융공학과/거시재무)**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연세대학교 석사/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사/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연구조교/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연구조교

**김의환(시스템공학과/시스템공학)**

서울대학교 졸업/MIT 석사, 박사/국방과학연구소 전자사업단장/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KOSSSE) 부회장

**Satchidananda Dehuri(시스템공학과/시스템공학)**

balpur University(인도) 졸업/Utkal University(인도) 석사, 박사/Fakir Mohan University(인도) 부교수

**김유석(의과대학/비교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졸업/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수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연구 조교수

**정경원(의과대학/중증외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졸업/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진료조교수

**유미애(간호대학/간호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사, 석사, 박사/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대우조교수



### 최승철 교수,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대상 수상자 선정 <sup>1</sup>

신소재공학과 최승철 교수가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6월 14일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이 상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한 자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최 교수는 2009년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 공학과 석사과정을 설립하고 특성화고교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지식재산교육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안재환 총장, 수원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 위촉

6월 27일 안재환 총장이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법운영의 투명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경기남부지역의 교육, 언론, 종교계 대표자 25명과 법원내부 인사 3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 하석주 축구부 전 감독에 감사패 전달 <sup>2</sup>

하석주 축구부 전 감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8월 27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2010년 12월 하 감독 부임 이후 아주대학교 축구부는 제12회 전국대학축구대회(2011년 9월)와 제8회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2012년 7월)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 교수진 방문 <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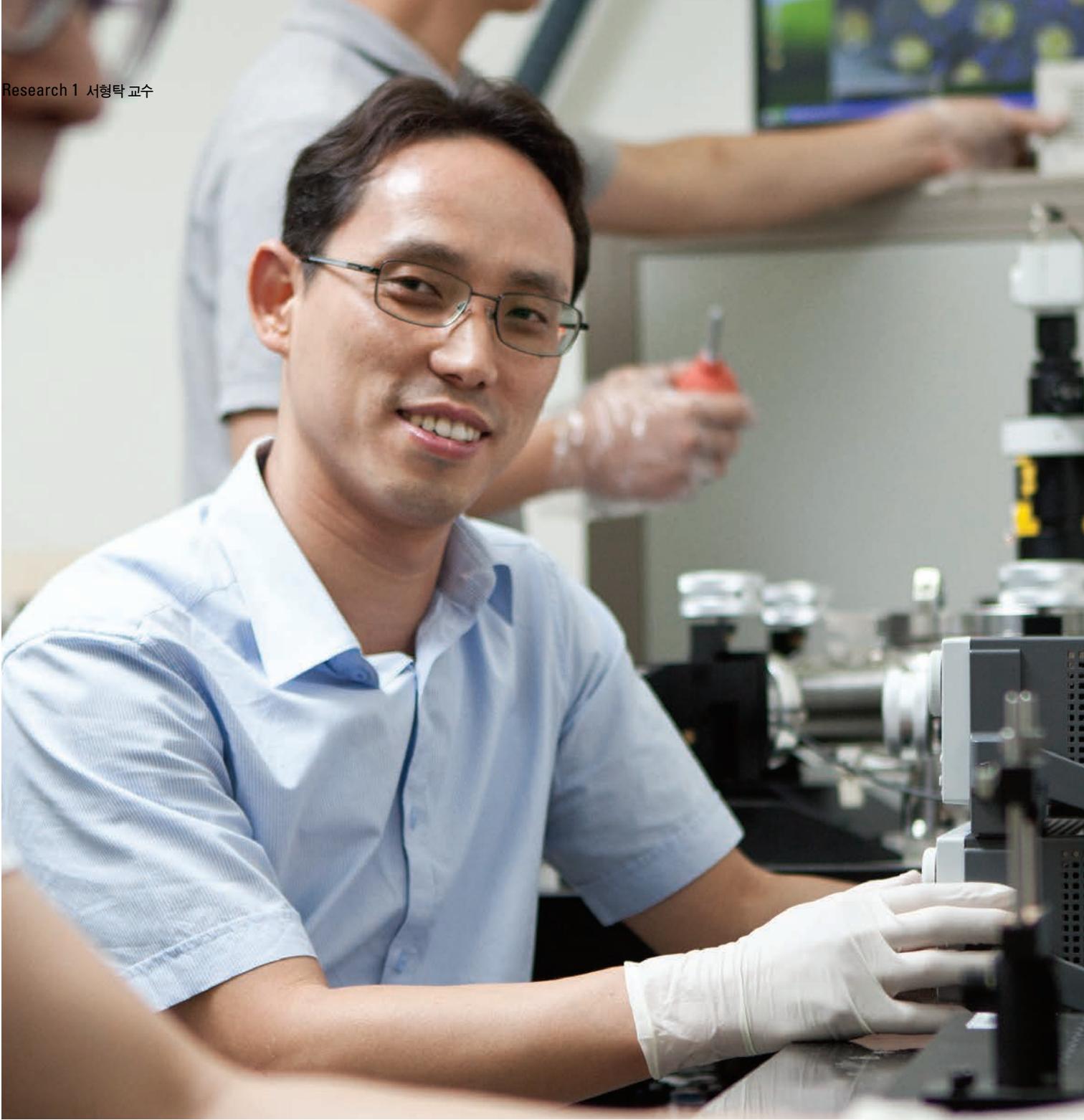
싱가포르 국립 난양 이공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관계자들이 8월 16일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를 방문했다. 양교 교수진들은 심포지엄에서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 안재환 총장, 중증장애 학생·학부모 격려 <sup>4</sup>

안재환 총장이 하계토익사관학교를 성실히 수강해 좋은 성적을 거둔 1학년 중증장애학생 고두호(사회과학부), 심희승(문화콘텐츠학 전공), 양희은(사회과학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양희은 학생과 고두호 학생은 각각 출석률 100%, 96%를 보였으며 고두호 학생은 교육수료 후 토익성적이 무려 230점이나 올라 780점을 기록했다.

### 조상목 학생, 2012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금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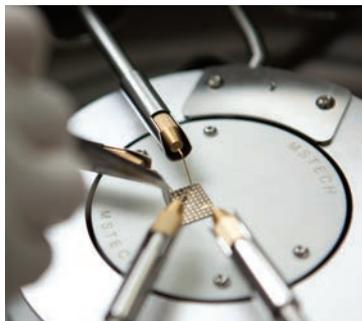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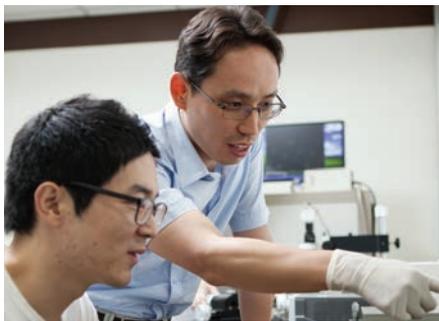
조상목(NCW학과) 학생이 6월 21~24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2 국제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2012 International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Fair)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조상목 학생은 이번 대회의 '신기술 경진대회'에서 '군사과학 학술논문 발표' 분야에 참가해 '전술통신 환경구축에 있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MSAP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한 수리모델'이란 논문을 제출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 ‘빛’을 잡은 연금술사

서형탁(신소재공학과) 교수

많은 학자들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에너지의 0.01% 만을 전환하여 사용해도 현재 인류가 직면한 ‘모든’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태양광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효율성 극대화’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끝이 요원한 그 무한질주에 말 그대로 ‘진일보(進一步) 한 성과가 아주대학교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의 연구에서 나왔다.’ / 글 이병유(편집실)



‘태양광 흡수율이 기존보다 400% 높은 나노입자’를 개발한 서형탁 교수. 그의 연구가 지난 7월 영국의 재료화학분야 유력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의 박사 후 과정(Post Doctor)에서 시작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구 주제는 반도체를 보다 집적화하는 분해차세대 트랜지스터-고유전체 절연막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사용한 실리콘막 반도체를 대체할 신소재를 찾고, 연구하는 분야죠. 박사 후 과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인 로렌스버클리 연구소에서 보냈습니다. 연구 분야는 태양광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나 수소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 즉 ‘태양광 촉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번 연구 역시 박사 후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요. 태양광에너지의 흡수율을 기존보다 400% 향상시키는 매개물질인 RuO<sub>2</sub>(루테튬 옥사이드)를 이용한 나노입자를 개발한 것이니까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Ru(루테튬)를 산화시키고(RuO<sub>2</sub>) 이를 20나노미터(nm)\*로 작게 만들었더니, 그 나노입자가 놀라운 태양광 흡수율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 교수는 부연한다. “태양전지는 일종의 작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광 흡수체 물질은 첫째로 태양광 흡수율이 높아야 하고, 둘째로 전기가 잘 통해야 합니다. 광 흡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금이나 백금, 은 등의 귀금속을 사용하죠. 그런데 Ru를 산화시킨 RuO<sub>2</sub>는 태양광 흡수율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전기도 잘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산화되면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고 태양광 흡수율도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서 교수의 연구영역은 신소재의 ‘발견과 생성’에 그치지 않는다. 근래 신소재공학의 임무는 실효성은 물론, 시장성의 발견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소재공학의 타깃팅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넘어 그 물질이 적용되어 창출할 이윤과 시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의 연구 역시 ‘태양전지의 효율성 제고’라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RuO<sub>2</sub>가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조명으로 대체를 이루고 있는 LED(발광다이오드)의 광도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도 발견했다.

“RuO<sub>2</sub>는 태양광 흡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빛의 방출’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빛 발광(Photoluminescence)\*\*에 적용했다니 휘도(輝度 brightness), 즉 밝기가 지금보다 2.5배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LED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질에 새로운 성질과 이름을 부여하고 ‘새로운 존재’로 규정하는 신소재공학. 서 교수는 이 학문의 매력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구 분야 사이에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 영역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주고, 기존 물질의 특성을 변형하여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의 순발력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번 연구도 1년 안에 상용화 전 단계, 즉 대량생산 직전 단계까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우리나라 신소재공학의 수준과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은 편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권위도 높다”고 말한다. 이런 전공에 대한 자긍심 때문일까? 서 교수는 이공계를 마음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길에 과감하게 들어서라고 조언한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단, 내가 좋아하고 즐기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라는 지루한 프로세스를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래도 연구자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근성과 독심도 필요하죠. 저는 힘들었을 때 김호길 박사(포항 공대 초대 총장)나 나카무라 슈지(블루LED 개발자)와 같은 이공계 멘토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품었던 학문적 이상(理想)과 문제제기로 저를 다시 Refresh할 수 있었지요. 그분들의 저서를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네요.”

태양전지의 물리적 한계를 향한 서 교수의 무한도전은 계속된다. 서 교수의 향후 연구과제는 여전히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연구가 태양광의 흡수, 즉 ‘얼마큼 빛을 잡아내느냐’에 대한 연구였다면, 다음 연구는 ‘태양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된 후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얼마나 빨리 막아내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태양전지를 포함해서 모든 반도체와 기기들이 열을 받으면 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초고효율의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는 무궁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지금 풀어야 할 문제는 ‘그 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내느냐’ 일 것이다. 빛을 ‘힘’으로 만드는 미래의 연구술사 서형탁 교수. 그 인과(因果)의 미술을 기대해 본다.

\* 1 나노미터(nm) = 10억 분의 1미터(m)

\*\* 레이저를 물체에 쬐고유의 발광을 측정하는 방식



# DNA 중앙 정렬로 시간을 훑치다

## 김주민(화학공학과) 교수

2001년 9. 11 테러 당시 전 세계를 또 한 번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탄저균 테러였다. '탄저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미 정부가 동분서주하는 사이 공포감은 극도로 확산됐다. 탄저균 같은 바이오 테러 물질이나 가축 전염병 등의 DNA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 치열한 연구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과학자가 아주대학교에 몸담고 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의 끝자락에 김주민 교수를 만났다./ 글 이슬(홍보실)



DNA 분석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김주민 교수의 연구성과가 고분자 물리학 계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받아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행하는 세계적 학술지 '랩온어칩(Lab on a Chip)' 8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 성과와 그 의미는?**

“현재 DNA 분석을 위해서는 ‘DNA 바코딩’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다. DNA 전체를 분석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바코드 부분(생물종의 특성을 담고 있는 짧은 염기서열)만을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존의 샘플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코일 형태로 꼬여 있는 DNA를 곧게 펼친 후 이것을 채널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나 디자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DNA를 중앙으로 정렬(Focusing)시키는 기술을 필요로 해왔다. 이번에 발견한 것이 바로 별도의 기기 없이 DNA를 채널 중앙에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원리다. DNA 분석 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량의 고분자 물질을 첨가하면 고분자 용액에서 발견되는 점탄성(Viscoelasticity)에 의해 DNA의 중앙 정렬정도가 약 47% 향상됨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 기술은 앞으로 분자 진단기술에서 DNA의 위치제어 기술로 활용되어 DNA 분석기술 개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의 성과에서도 엿볼 수 있듯 김주민 교수의 연구분야는 다양한 학문들과 맞닿아 있다. 화학공학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산업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나노,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 공학 등의 분야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에 새로운 분야가 태동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김 교수의 전문 분야는 유변학(Rheology)에 기반을 둔 미세유체공학으로 화학공정들을 소형화·집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혈액샘플을 분석하는 칩이나 물속의 미세입자를 분석해 수질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소형 칩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세계적 학술지에 표지논문을 실기까지 어려움 없었나?**

“이번 연구는 직전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원리에 착안해 출발했다. 덕분에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가정을 실제로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연구에 함께했던 대학원생들의 경우 비슷한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연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수적이다. 과학연구에 있어 창의성이라는 것은 ‘길가다 문득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다. 끊임없이 공부해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에 몰입하다보면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험을 거쳐 원하는 결과로 입증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사실 실망스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연구는 한편으로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 환경공학 등과 결합된 융합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 전공이 아닌 다른 전문 분야는 어떻게 접근하나?**

“화학공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다른 학문에 대해 박식하게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력연구를 많이 진행한다. DNA와 관련한 연구를 할 때는 의과대학 교수들과 협력했고 실제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연구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한다. 융합학문을 하다보면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한다.”

김주민 교수는 미국 MIT 화학공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뒤 2008년 3월 아주대 교수로 부임했다. 아주대의 일원이 된지 이제 5년째, 학생을 한명 한명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아주대학교 학생들, 특히 공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주대 학생들은 보면 불수록 성품이 훌륭하고 매너도 좋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 잠재력을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앞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연구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때 외국어 능력은 필수다. 부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일동 웃음)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김민규(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 글을 읽을 분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리치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치왕은 서양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입니다. 일명 와우(WOW)라고 부르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속 캐릭터입니다.

‘리치왕’을 경계하며





게임에서 리치왕은 악마입니다.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좀비 같은 언데드로 만들지요. 오직 자신만의 명령에 의해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리치왕은 원래부터 악마는 아닙니다. 원래 인간 종속에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었던 왕자였습니다. 악마와 대적하는 과정에서 악마를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간절히 원했던 왕자는 그 힘을 얻고 오히려 악마가 되었습니다.

인간 왕자가 악마가 되는 과정은 게임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갈구하지만 그 갈구의 정도가 수단에 종속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치왕이 됩니다. 리치왕의 합리화는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자기기만의 과정입니다. 목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스스로가 당위성을 부여하고 변질된 목적과 명분 뒤에 숨어버립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를 '어쩔 수 없음'으로 대체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상화의 질곡에 빠지게 합니다. 목적 가치는 수단에 대한 사적 전유로 채워지고 공허한 언어가 규율 기제가 됩니다. 공익적 명분을 내세워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요. 사회 계몽을 목적으로 시작한 언론도 영혼 없는 언어를 통한 담론 정치체가 되고 있지요.

이러한 과정은 개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율을 정하는 제도와 실행체로서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치왕의 명령과 실행의 테두리 내에서 영혼 없는 언데드가 만들어지고 전염이 확산되듯이 스스로를 제도에 속박하고 경계를 지우면서 제도를 리치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리치왕의 영토가 되어 리치왕의 주민을 만드는 장치가 되지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다른 세계로의 영혼의 탈주를 막는 거지요. 삶을 위해 만든 조직은 어느덧 필요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영속성을 위해 스스로를 화석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원래의 목적을 잃어 버리고 영혼 없는 언데드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우리는 스스로 언데드가 되는 것도 모르고 리치왕을 쫓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  
 모두가 하나의 지점을 향해 눈 가리개를 한 말처럼 질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왜 질주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틈이 없이 질주를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  
 또 다른 언데드를 만들기 위해 리치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스스로 리치왕에게 영혼을 내주고 리치왕의 주민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  
 게임속 캐릭터가 낯설지 않고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은 왜 일까요?

리치왕은 소멸하지 않고 누군가로 대체하면서 계속 남아있다는 게임 속 이야기에서 내 자신이 리치왕이 되지 않기 위해, 리치왕의 주민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아서스 : 리치왕의 탄생**

소설 '아서스: 리치 왕의 탄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리자드의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게임 속 방대한 스토리와 세계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리치왕' 과 강력한 룬검 '서리한' 의 이야기를 저자 크리스티 골든은 한 권의 소설로 만들어냈다. 소설을 통해 아서스의 어린 시절과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상처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을 보게 될 것이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의 한 부분을 소설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어나라, 내 안의 거인

### 강규철(물리학과 99) 동문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 바로 답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현실로 바꿀 준비가 된 것이다. 강규철 동문은 이공계 출신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불식하고 제46회 외무고시(5등급 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 선택한 험로였다.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는 행복한 예비 외교관. 그에게서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도전자의 노하루를 배운다. / 글 이혜인(편집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모르겠다.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강규철 동문의 꿈은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에 담긴 한 글귀에서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과학자를 꿈꾸던 소년이었다. 중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물리 교과서를 보며 머리를 식힐 만큼 물리 과목을 좋아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한 과학자의 인생 고백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내 인생은 수수께끼였다’가 아닌 ‘내 인생은 꿈이 이끄는 인생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멋지게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는 삶. 전부를 걸어도 후회 없을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번 마음먹은 일이라면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는 타입이다. 모교인 전주고등학교 입학 석차는 전교 111등, 대입 수능은 전교 3등으로 모의고사 때보다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서울대, 포항공대에 합격했고 우리 대학 자연과학부에 수석 입학했다.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적성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문 연구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활동가의 기질을 발견한 것. 2002년에는 중국에서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며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신림동 고시촌과 학교 행정고시 준비반 ‘아현제’를 오가며 본격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했다.

“아현제는 항상 공부할 장소가 마련돼 있고 무료 이용인데다, 생활 장학금과 1차 합격 장학금, 2차·3차 합격 축하금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결혼 후 특별한 수입 없이 수험생활을 시작한 저로서는 도움이 됐지요. 고시반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신 김서용(행정학과) 교수님, 비전공자인 제가 국제법의 뼈대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소병천(법학과) 교수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이공계 출신에게 외무고시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학……. 생전 수업을 들어보기는커녕 이름조차 생소한 과목들과 힘겨운 씨름을 시작했다. 폐기 있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당시 토의 점수는 497점. 외무고시 1차 응시자격은 토의 775점, 게다가 외무고시 영어 시험은 토의 만점자라도 과락이 나올 만큼 어렵다. 그러나 상황만 두고 보면 외무고시는 ‘남사벽(남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나 다름없었다. 오직 가슴에 품은 꿈만이 절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저는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회,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이들과 협력해 다음 세대를 교육할 환경을 만드는 것, 이 계획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외교관이었습니다.”

2008년, 2011년에 1차 합격을 했으나 다음 고비에서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30대 1의 경쟁률(969명 응시, 32명 합격)을 기록한 올해 외무고시에 최종합격한 것이다. 그는 7전 8기 합격의 영광을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린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평생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부모님, 후원을 아끼지 않은 형제들, 고시를 포기하려던 때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도전해요’라며 위로 해준 아내, 11개월 된 딸까지……. 이들 모두의 사랑과 격려로 이룬 꿈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월 말부터 국립외교원에서 ‘예비 외교관’ 교육을 받고 있다. 고시 공부를 할 때 못지않게 바쁜 나날이지만 새롭게 주어진 기회가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과감한 선택, 그리고 간절한 한걸음, 한걸음으로 만들어가는 꿈. 강규철 동문은 그 꿈의 가치를 후배들이 이어가길 바란다.

“꿈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그 꿈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꿈,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상관 없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 강규철 동문이 전하는 합격의 법칙

#### 1. 다른 사람을 맹종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다.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를 쌓아 두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정해 여러 번 본다, 시험 전날은 집에서 잔다’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자.

#### 2. 넉넉히 합격할 만큼 공부한다.

외무고시 1차는 체력, 2차는 암기, 3차는 자신감이 포인트다. ‘떨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반드시 뽐낸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로 임한다.

#### 3. 입술을 다스려 마음을 추스른다.

가나긴 수험기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신력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능률을 떨어뜨린다. 긍정적인 말로써 마인드 컨트롤하자.

#### 4.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한다.

고시를 함께 준비할 파트너가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나와 공부하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관계 정도면 충분하다.

#### 5. 멘토를 찾는다.

멘토는 나의 꿈을 항상 칭찬하며, 내가 위축될 때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서도 잠재력을 이끌어내 주는 지원군을 찾아보자.



### 2012년 학과장 워크숍 개최

2012 학년도 학과장워크숍이 6월 21일~22일 포천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에서 학과제 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학과 발전 방향 등 총 10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김민구 기획처장-학제개편에 따른 학과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아주비전 2023 및 액션플랜 △박영동 교무처장-학부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변화 △한호 교무부처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K-CESA,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실시한 ACE 중단연구에 있어서 아주대 지표 △박철균 사회진출센터장-2004~2011년까지 우리학교와 타 대학 간의 취업률 비교 △김도영 대외협

력처장-아주대학교 국제화의 전략적 파트너십 내용 △임한조 대학원장-우수 대학원생의 유치 위한 대학원/연구 Fair 학술행사 계획 △송하석 기초교육대학 교수-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구조개편안과 AFL/AAFL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학래 홍보실장-아주대학교 20년 홍보의 흐름과 홍보 활성화 방안 발표

안재환 총장은 강평을 통해 “아주대학교가 보다 훌륭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실적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연구와 국제화 부분에서 학과별로 상위 10위권 내에 들려고 노력한다면 아주대학교가 국내 상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URP) 발대식<sup>1</sup>

학부생들이 교수, 대학원생과 함께 논문 완성하는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URP)’ 발대식이 6월 26일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총 222개 팀이 지원해 최종 194개 팀이 선정됐으며 연구팀들은 올해 11월까지 연구결과보고서와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우수보고서는 학술저널에 투고하며 성과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된다.

2

###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선포 및 서약식 개최

입학처는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5일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선포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총 86명의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서류와 면접평가에 참여한다.

3

### 여성센터, 여고생 대상 ‘진로설계 프로그램’ 실시

아주대학교 여성센터(센터장 김혜선)가 경기 지역 여고생들을 초청해 진로설계 프로그램 ‘드림투게더’를 개최했다. 7월 14, 21, 28일 사흘 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용인시 소재 현암고와 수원시 소재 청명고, 창현고, 영복여고 1~2학년 학생 229명이 참석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 전공과 졸업 후 진로 등을 탐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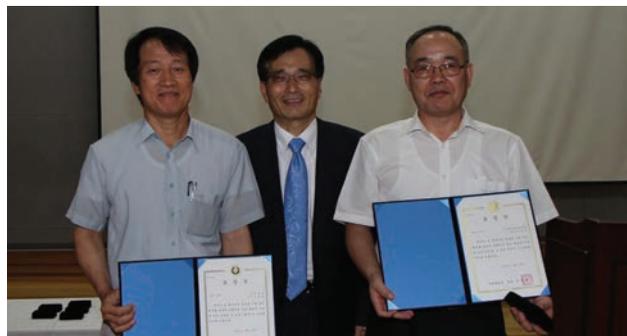
### 2012년 2학기 개강교수세미나 개최

8월 23일 율곡관 대강당에서 2012년 2학기 개강교수세미나가 열려 신입교수 소개와 근속 교수 표창, 학교 주요 정책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아주대학교는 이번 학기 신입교수로 의대와 간호대를 포함하여 10명의 교수를 임명했다. 올해 근속교원 표창을 받은 교수는 총 32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30년 근속 :** 최경희(정컴), 이주희(경영)

**20년 근속 :** 이수훈(기계), 임석철(산정), 서경원(화공), 신영석(건설), 이해영(전자), 정기현(전자), 나상신(전자), 김동윤(정컴), 박승규(정컴), 고계원(수학), 안성희(물리), 이순일(물리), 김영곤(경영), 이민규(심리), 강명구(행정), 유승익(정외), 이선이(사회)

**10년 근속 :** 김창구(화공), 이상수(교통), 박장호(건설), 이채우(전자), 노병희(정컴), 최정주(미디어), 이상민(물리), 김선교(경영), 강민철(비즈), 조광국(국문), 한호(영문), 김은정(심리), 이분열(분자)



# 2012

# Ajo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 뜨거웠던 여름을 추억한다

### 아주 국제여름학교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개최한 아주 국제여름학교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총 75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남산한옥마을, 보령 머드축제, 제주도, 삼성 딜라이트(제험관), 한국민속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체험지와 첨단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 전통의 멋과 맛에 푹 빠져들었다. 또한 '하나의 아주인'으로서 이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국적과 나이, 개성만큼 다채로웠던 이들의 여름학교를 추억해 본다.





03



04



01. "덤-기덕쿵더러러 쿵-기덕쿵더러러" 장단에 맞춰 열심히 장구와 북을 두들기지만 귀는 엄청 아프네요.

02. 이날 우리의 피부색은 하나였습니다. 서해의 '검은 황금' 보령의 머드와 폭 빠진 우리를. "어때요? 축제 분위기 나나요?"

03. 태권도 동아리 '차오름' 친구들의 도움으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막고, 찌르세요." 사범님의 설명에 따라 팔을 힘껏 뻗어보지만 "아빨싸, 팔과 다리가 같은 쪽이네요."



04. 한국민속촌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본 곤장대, 별을 주는 도구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05. 오늘 파티의 주제는 'Fashion Disaster Party' 인만큼 모두 한껏 멋을 안 부리고(?) 파티장에 나타났네요. 그래도 매력은 잊지 않고 가져왔나 봐요.



05



06



# 아름다운 기회를 드립니다

## 대학발전본부

대학발전본부의 '2011년 발전기금 연보'는 난로 같았다. 책 속에는 아주대를 향한 저마다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오로지 "학교와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금을 쾌척한 교수님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아주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학교 앞 짜장면 집 아저씨까지..... 마음 속에 간직한 아주대를 향한 사랑을 이끌어 내고, 그 사랑을 연결하는 곳. 바로 아주대학교 대학발전본부다. / 글 이병유(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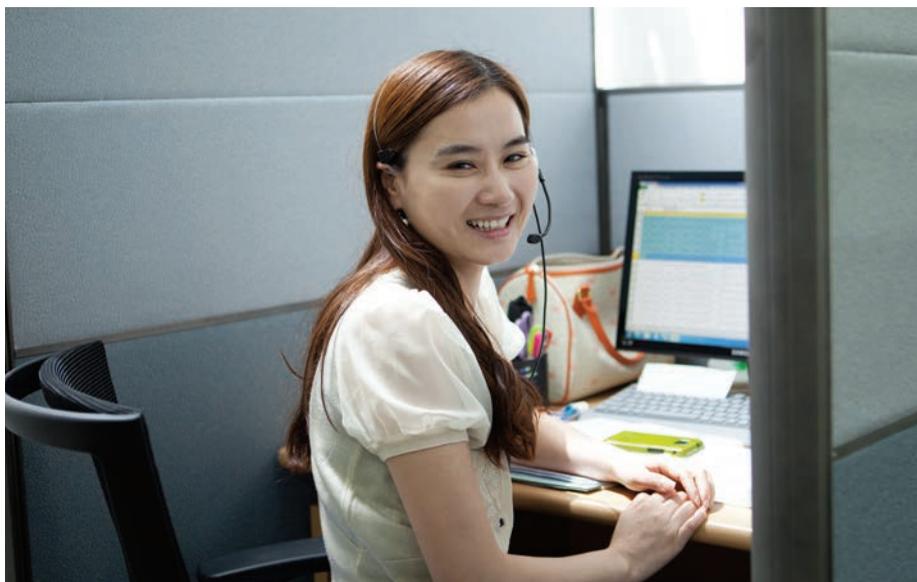
## 소통과 교류, 신뢰와 사랑이 먼저

대학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부'와 연결하려는 인식이 있다. 물론 대학에 대한 재정적 후원은 대학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는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지 전부는 아니다. 대학 발전에는 반드시 '소통과 교류', '신뢰와 사랑'이라는 선행(先行)단계가 필요하다. 대학발전본부에 대한 이해를 보다 크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아주대학교 대학발전본부는 교직원, 동문, 학부모가 대학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총동문회와 동문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주인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 믿음을 쌓아감으로써 대학과 동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동문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것이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총동문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동문주소록 업데이트로 동문들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기수별, 학과별, 지역별, 직장별 등 크고 작은 동문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학3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들의 재상봉과 홈커밍(Home Coming)을 겸한 입학 30주년 행사는 동문과 발전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대학 발전에는 반드시 '소통과 교류', '신뢰와 사랑'이라는 선행(先行)단계가 필요하다. 대학발전본부에 대한 이해를 보다 크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4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받은 사랑을 학교와 학생에게 돌려주고 싶다"면서 10억을 쾌척한 김용득(전자공학과) 교수가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 (2011년 6월)



지난 5월 시작한 '아주사랑 콜센터'를 통한 1-1-1 캠페인(1인이 1개월에 1만원 기부)이 2개월 만에 1억 원 약정을 돌파했다. 이로써 1999년부터 시작된 1-1-1 캠페인은 20억 원 약정을 달성했다.

### 목표를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뢰 형성을 위한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발전본부는 뚜렷한 '목표'를 내걸고 실질적인 기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3년 건학 4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39살 아주대가 달려갑니다' 캠페인을 통해 발전본부는 2014년까지 200억 원의 기부를 이끌어 내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단순한 모금 활동뿐만 아니라 '아주사랑 웨딩'과 같이 아주대학교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선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발전본부의 부단한 노력은 수차례 증명되고 있다. 지난 5월 시작한 '아주사랑 콜센터'를 통한 1-1-1 캠페인(1인이 1개월에 1만원 기부)이 2개월 만에 1억 원 약정을 돌파한 것이다. 이로써 1999년부터 시작된 1-1-1 캠페인은 20억 원 약정을 달성했다.

지역사회의 후원도 눈에 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아주대학교에서는 주변 21곳에 달하는 '아주대생 후원의 집'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자신이 누리는 과실을 모교와 그리고 동반자와 나눌 줄 아는 진정 현자(賢者)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발전 본부. 그 노고 역시 아름답다.

## INTERVIEW

###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 "아주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학발전본부의 역할과 업무는?

많은 분들이 '기부 업무'를 발전본부 업무의 전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학발전본부의 근본적인 역할은 학교와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문 및 교직원을 포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아주대학교의 여러 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아주대학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이를 그분들께 제안하는 것이죠. 기부는 그 여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발전본부 운영 중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동문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를 만날 때 느끼는 '마음의 벽'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의 정서에 '기부'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고,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과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자이자 '하나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기부자나 미담사례가 있다면?

3년 전 "4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학교와 학생에게 돌려주고 싶다"면서 10억을 쾌척하신 전자공학과 김용득 교수님과 지난 8월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모교에 감사하다"면서 미화 10만 달러를 기부하신 송진국 동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학교 근



처의 제일식당 사장님께도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정성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표하셨는데 이것이 '아주대생 후원의 집'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대학발전본부의 비전과 향후 계획은?

'아주사랑 웨딩'이나 '후원의 집'과 같은 다양한 대학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기금 모금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동문들은 언젠가는 모교 발전을 위하여 사랑을 주실 분입니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부에 대한 부담보다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향상 간직할 수 있도록 학교소식 공유와 동문들의 유대강화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아주인으로 우뚝 서서서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끊임없는 가치 지향과 소통, 이것이 '상민 스타일'



## 제 19대 국회의원 김상민(사학과 92) 동문

서른아홉의 청년 정치인은 달변이었다. 열정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노련했으며, 중년의 문 앞에 서 있는 '신사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무겁지 않았다. 정견 발표와 같았던 그의 말에는 날 것의 풋풋함과 정제된 것의 간결함과 명료함이 함께 묻어났다. 아주대학교 학부출신 최초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상민 동문을 만났다. / 글 이병유(편집실)



“아주대학교는 제게 ‘운명’ 이죠.” 애이 재미없고 진부한 멘트……. 그 역시 여느 정치인과 다르지 않은 건가. 무례한 예단이 그를 삼키려는데, 아주 그럴싸한 그와 아주대의 인연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운명’이라는 말은 그저 모교를 향한 리서비스만은 아닌 듯 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수원에서 다닌 수원 토박이입니다. 수원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웃음) 게다가 아주대와 같은 1973년생이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4월 12일은 아주대학교의 개교기념일입니다.” 단지 숫자 몇 개가 맞아떨어졌다고 ‘운명’이라는 육중한 단어를 붙였다면 그를 ‘실없다’고 훅박도 좋으리라. 그와 아주대의 운명은 숫자놀이에 있지 않았다. 그는 1993년 아주대학교에 붙여진 한 장의 대자보를 잊을 수 없다.

“2학년 때였죠. 당시 아주대학교의 상징은 반인반마(半人半馬)였습니다. 반인반마는 신화 속 괴물인데 음란하고 야만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할 아주대학교의 상징으로 반인반마는 합당하지 않다!’ 라는 논지로 1인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지요. 반향은 매우 컸습니다. 반대 또한 대단했죠. 제가 있던 동아리방이 쇠파이프에 부서지기도 했으니깐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저희 과의 모든 수업에 들어가서 학우들을 설득했고, 3일 만에 3천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전교생의 총투표를 거쳐 결국 학교의 상징물을 지금의 선구자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시절 최대의 사



건이자 성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정치’에 눈을 뜬 곳이 바로 아주대학교입니다.”

김상민 동문은 1999년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가 생긴 이래 아주대학교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었다. 임기 중에는 공허한 정치투쟁 보다는 학내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 고민과 실천은 졸업 후에도 이어졌다. 얼마 전 제 19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김상민 의원이 신고한 이색적인 재산이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 5,773만원의 적자재산과 ‘3.5톤 트럭’ 이었다. 규모가 꽤 큰 편인 이 트럭의 정체는 그가 설립하여 10여년간 이끌어온 청년 자원봉사단체 ‘V원정대’의 법차다. 김상민 의원은 청년운동가 출신이다. 현장을 누비던 청년운동가가 어떤 사연으로 현실 정치에 투신하게 됐을까?

자신의 신념을 살아 움직이는 ‘실체’로 이뤄내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자기희생과 결의가 필요했다. 그는 V원정대를 이끌어 가는 동안 자기에게 세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첫째는 이 단체를 이용해 재산을 모으지 않겠다. 둘째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을 보니 애가 하나 둘 생기니까 평생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아이의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웃음) 물론 아이들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셋째는 이 모임과 단체를 나의 소유로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김상민 동문은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냈다. 아직 독신인 그의 재산은 수 천 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V원정대의 대표직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의원의 자리에 있지만, 정치인을 대변하여 청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대변하여 기성 정치권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초선의원 김상민의 개인기이자, 진정한 상민 스타일이다. ‘빨간 파티’라는 소속 정당의 도발적인 청년소통 프로젝트도 그가 기획하고 제안하여 벌써 시즌 2를 맞고 있다.

청년들이 고단한 이 시대, 사랑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문했다. 각별한 동생에게 전한 말처럼 그의 조연 속에는 짙은 애함과 먼저 겪은 선배의 지혜가 녹아 있다.

“지금 자신이 이등비등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남보다 조금 좋은 차, 조금 넓은 집, 좀 더 여유로운 삶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 속의 ‘요동침’ 뿐입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무엇, 그 모티베이션(동기)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공한 인생에 특별하고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남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간절하면 됩니다.”

“학생 때부터 줄곧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결단을 내리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그의 가치 지향과 동력으로 설립된 단체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웃과 나누는 ‘V원정대’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청년활동을 이어오면서 주변에서 ‘정치를 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사를 했죠. 그런데 올 3월 새누리당의 ‘감동인물찾기 프로젝트’에 제가 소개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찾아오셔서 정치 입문을 권했습니다. ‘함께 이뤄야 할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망의 지수’가 같았음을 느꼈고, 평소 제가 신념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심 없는 사람의 결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제기로 공청회와 전교생의 총투표를 거쳐 학교의 상징물이 ‘반인반마’에서 지금의 ‘선구자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대학시절 최대의 사건이자 성과죠. 제가 ‘학생정치’에 눈을 뜬 곳이 바로 아주대학교입니다.”**



##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이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8월 6일 웰빙센터를 오픈했다. 세련된 현대식 건물의 외관과 편안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로 마감된 웰빙센터는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과 차별화된 웰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주대학교병원 제2의 성장과 도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 글 손미선(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진정한 ‘힐링’ 이 시작되는 곳,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웰빙센터는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6012㎡ 규모로, 1층에는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비뇨기과, 국제진료센터와 통합검사실이, 2층에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학습발달클리닉이, 3층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유전학클리닉과 주사실, MRI, CT 검사실이 위치해 있다. 4층과 5층에는 한층 고급스러워진 건강증진센터가 6층에는 아주스포츠의학센터와 암 환자 쉼터인 아주푸른공간이 새로 들어섰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강 패러다임을 적용한 아주대병원 웰빙센터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더 나아가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진료센터, 스포츠의학센터, 6층 복카페)

웰빙센터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강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함께 찾는 병원,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더 나아가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진료와 검사, 치료 공간을 한 곳에 배치해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One-Stop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웰빙센터를 건립하며, 기존에 직업 환경의학과와 건강증진센터로 이분화되어 있던 건강 검진 기능을 통합하여 웰빙센터 4, 5층 건강증진센터로 확장 이전했다. 건강증진센터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진단 장비로 단장하고, 여성 전용 검진 구역과 숙박객진 고객을 위한 기능 검진실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의 통합 및 확장과 더불어 웰빙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웰빙센터 6층에 신설된 암 환자 쉼터인 ‘아주푸른공간’과 ‘아주스포츠의학센터’이다. 아주푸른공간은 아주대학교병원의 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으로 지친 환자들에게 음악과 미술치료, 웃음치료, 운동과 명상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곳은 암 환자의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웰빙의 공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healing)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주스포츠의학센터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스포츠의학 전문의로부터 개인별 진단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고,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주대학교병원은 병원 본관에 있던 14개 진



료를 웰빙센터로 이전하며, 단순히 진료공간의 이전을 넘어 ‘고객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웰빙센터 1층에 위치한 비뇨기과와 알레르기내과의 경우 같은 공간 안에 검사실과 치료실을 두어 검사와 치료를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웰빙센터 2층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는 소아주사실과 항암치료실, 영양해독치료실(VNT)과 생활습관치료실 등의 기존에 없던 치료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치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웰빙센터 내에 통합검사실과 MRI, CT 검사실, 주사실을 추가로 설치해 본관으로의 이동 없이 웰빙센터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웰빙센터 이전으로 여유 공간이 생긴 아주대학교병원 본관은 환자 중심의 기능형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장기별, 질환별 유기적인 협진이 가능하도록 센터 체제로 재정비에 들어갔다. 본관 리노베이션 및 진료시스템의 정비가 완료되면, 본관 2층에는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폐암센터, 간센터, 유방암센터, 부인암센터 등의 암센터와 소화기병센터가 3층에는 심혈관센터와 내분비센터 등이 위치해 질환별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 및 선정

# Award & Selection

## AC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우수대학 선정

아주대학교가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ACE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수도권 3개, 지방 8개) 중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집행 실적과 같은 정량 측면의 현장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 측면의 패널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 의대 만성염증질환센터, 2기 연속 교과부 지원기관 선정

의과대학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센터장 주일로)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재선정됐다.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는 9년간 1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기 연구를 신청했다. 이번 재선정으로 올 9월부터 7년 동안 연구비 70여억원을 재차 지원받게 됐다. 2기 연구는 총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교수들과 70명에 달하는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한다.

## 2012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획득

아주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이 8월 1일 발표한 '2012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 최종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총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A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최소 20%의 간접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내 첫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신설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SW)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한다. 정보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2년도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1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SW특성화대학원' 학생 전원은 대학원 2년간의 등록금과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받고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교 산하 SW공학연구소(STI)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 교육대학원, 교과부 평가 '최고 등급'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조사 대상 31개 학교 중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아주대학교와 서강대 두 곳 뿐으로 81%에 달하는 25곳의 학교가 C·D등급을 받았다. C, D등급의 학교는 스스로 정원을 줄이거나 교원양성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 교과부는 경영 및 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았고 162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 기술이전 수입료 사립대학 중 8위 기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2011년 기술이전 수입료 현황을 발표한 결과 아주대학교는 11억 7,270만원으로 전체 12위(사립대학 중 8위)를 기록했다. 아주대학교는 2010년 7억 4,300만원으로 전체 17위를 기록했지만 2011년에는 4억 2,970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기록 상승을 이뤄냈다.

## 옥상호·김현우 학생, 발명 경진대회 수상<sup>1</sup>

옥상호(전자공학과 06, 왼쪽 사진)학생과 김현우(e-비즈니스학과 06)학생이 각각 제11회 대한민국 GLAMI AWARD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제1회 남중현 발명문화상에서 수상했다. 옥상호 학생은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서비스를 설계한 작품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 News Brief



##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통산 3번째 우승

아주대학교가 제8회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대를 1-0으로 물리치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7월 10일 전남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아주대학교는 전반 12분에 박동규의 헤딩골을 지켜 2010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석주 감독은 “준결승에서 부상당한 이재민을 대신해 투입한 박동규가 결승골을 터뜨려 줘서 너무 기쁘고, 선수들에게 우승을 많이 선사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행복하다” 고 말했다. 조원형 선수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윤순조 선수는 수비상, 임종민 선수는 GK상, 이지민 선수는 도움상을 각각 수상했다.



## 경기도시공사와 직원 스트레스 해소 협약

아주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은정)가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와 7월 17일 '민원상담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협약(MOU)' 을 체결했다. 아주심리상담센터는 400여명의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상담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독도역사문화탐방단, 울릉도·독도 방문

아주대학교 학생 56명이 '2012학년도 독도역사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이번 행사는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울릉도 일주 문화기행, 울릉도 자연정화활동, 독도 역사·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독도 문제를 두고 토론대회와 세미나도 열렸다. 방문단은 귀항 직전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에서 '독도 선언문' 을 낭독하고, 독도 수호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독도 경비대원들을 추모했다.



## 어두운 골목에 생기를...학생 60여명 '벽화그리기' 봉사

아주대학교 학생 60여명이 8월 8일부터 사흘 동안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팔달구 지동에서 전개된 이번 봉사활동은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정순이 작가를 비롯한 전문 작가들도 참여했다.

의료원 소식

# Medical Center



## 아주대병원, 여성지위향상 대통령 표창<sup>1</sup>

아주대학교병원이 여성지위향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으로서 위기에 처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빠른 응급의료지원으로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높게 인정받았다. 수여식은 7월 3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 육군 51사단과 진료협약 체결<sup>2</sup>

아주대학교병원이 육군 51사단과 장병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서남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51사단 내 군 의무요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응급환자 발생 시 장병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은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신안군과 진료협약 체결<sup>3</sup>

아주대학교병원이 6월 15일 전남 신안군과 의료서비스 및 응급중증환자 치료에 관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진료협약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신안군민의 진료 시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신안군수가 추천하는 중증외상 군민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관내에서 실시하는 아주대병원의 각종 의료사업 및 세미나, 의료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민영기 교수, 홍콩 임상중독학 지도의사 자격증 획득



의과대학 민영기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홍콩응급의학회가 부여하는 '임상중독학 인증의 및 지도의사 자격증 (Certification in Clinical Toxicology, Preceptorship in Clinical Toxicology)' 을 획득했다. 민영기 교수는 2011년 홍콩중독정보센터(Hong Kong Poison Information Center)에서 1년간 임상중독학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했으며, 최근에 홍콩응급의학회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 의료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노사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병원 내 파업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은 7월 12일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열렸다.

## 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



## ‘학생중심의 대학’ 아주대학교



대우학번들이 입학하던 1990년대 후반, 아주대학교의 성장은 타 대학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국내 최초 학부제 도입, 국내 최초 복수전공 인원제한 폐지, 국내 최초 원스톱학생서비스센터 신설, 국내 최초 인원제한 없는 파격적인 장학제도 시행 등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빼놓고 아주대학교를 설명할 수 없는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이었다. 이 당시 파격적인 제도 전환의 기본 철학은 ‘학생중심’이었다. ‘학생중심의 대학’ 닉네임은 이때 생긴 용어로 이는 운영되는 학교제도에 기본적으로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경쟁자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의미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된다는 뜻이다.

사실 학생중심제도의 가장 중심은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도였다. 국내대학 최초의 학부제, 복수전공제도를 시행한 학교답게 아주대학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았다. 학부로 입학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학부제는 학사운영의 편리함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비중을 두었다. 이 때문에 당연히 학과 혹은 과목별로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행정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학생중심제도는 원스톱학생서비스센터(ASC)와 사회진출센터의 설치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설립된 학생위주의 민원접수부서로 학생들이 각종 민원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결 가능한 민원들이 많아졌지만 인터넷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았던 90년대에 ASC에서는 휴학, 복학신청과 증명서 발급을 터치스크린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고, 신청이나 발급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대학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당시 유력 일간신문들이 앞 다투어 취재해 대서특필 할 만큼 핫이슈였다. 역시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사회진출센터의 처음 시작은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조직이었다. 정보교류가 자유롭지 않던 시절 대부분의 대학들은 취업은 학생 개인의 몫이라 생각했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알아보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90년대 후반, 아주대학교는 취업관련 소식을 일괄적으로 모아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는 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회진출센터에서는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보들을 알려주었고, 밖으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아주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아주대학교 이미지 쇄신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사실 아주대학교의 학생중심 시스템의 중심은 신입생 장학금이다. 보통 장학금은 수석, 차석에게 지급하는 것일 일반적으로 등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주대 신입생 장학금은 조금 다르다. 자신의 수능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장학생 여부를 알 수 없는 타 대학과는 달리 우리 아주대학교는 수능성적만으로도 바로 장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장학금 지급기준이 실제 선발기준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총원으로 합격하는 경우에도 장학생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주대학교는 입학성적에 비해 장학금 선발기준이 높지 않고(결국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입학상적 상위의 몇몇 학과는 대부분이 장학생으로 구성된다.

이렇듯 아주대에서는 행정시스템이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의사결정의 기준은 학생들의 선호도, 편리함이다. 그렇다보니 아주대학교에 20년 남짓 보낸 본인 역시 이런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입학처장직을 하면서 다른 학교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타 대학의 입학설명회를 자주 듣다보니 아주대학교만큼 학생들 위주로,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며 좋은 제도들을 금방 받아들여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입학처장 입장으로는 이런 행정시스템 때문에 입학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평일에 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는 입시가 진행되면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입시지원을 위해 돌아가기 때문이고 행정위주의 정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을 휴강하면서까지 논술이나 면접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그 환경의 소중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주대학교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아주대학교가 얼마나 ‘학생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 아주대학교는 무엇보다 재학생 위주로, 재학생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움직이는 학교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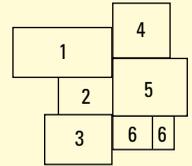
대우그룹의 해체로 이제 우리 학교는 90년대 후반과 같은 전폭적인 재단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직 ‘학생중심’의 좋은 시스템과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교수들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개교 4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구성원 스스로에 의한 창조적인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김경래

# 아주사랑

아주대학교는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학' 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 6-8월, 많은 분들이 아주대학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이삼구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축구부 후원금 전달

이삼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해동산전 대표이사)이 아주대학교 축구부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7월 열린 '제8회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본교 축구부가 우승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우승기념 축하연에 참석한 이삼구 회장은 "아주대학교 축구부가 출전하는 경기는 꼭 챙겨보며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석주 축구부 전 감독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축구화를 선물했다. 아주대학교 축구부는 지난 10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8회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 2. 송진국 동문, 10만 달러 장학금 약정

아주대학교 1회 졸업생인 송진국(화공73) 동문이 8월 14일 미화 10만 달러 기부를 약정했다. 1982년 미국으로 건너간 송진국 동문은 현재 알로에를 주원료로 하는 화장품 회사 '나테라 인터네셔널(Nattera International Inc.)'을 경영하고 있다. 송진국 동문은 사업차 한국에 방문해 이번 기부를 약정했으며, "내년에 추가로 10만 달러 기부 약정과 자사에 아주대생 인턴십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식 대학발전본부 본부장은 "기부금은 '송진국 장학기금'으로 만들어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활용계획을 밝혔다. 송진국 동문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모교에 더 많은 기부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 3. '허수아비 장학금' 전달식 열려

정재호(허수아비 아주대점) 대표가 8월 31일 총장실에서 아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했다. 안재환 총장은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재호 대표는 아주대 대학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대생 후원의 집 캠페인'에 참여해 900만 원을 약정한바 있으며, 이 중 490만 원을 납입했다.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받은 주민건(사회과학부)과 신재규(화공신소재공학부) 학생은 각각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전달식에서 정 대표는 "아주대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아주대학교에 보탬이 될 방법을 고민했는데 '아주대생 후원의 집'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향후에도 아주대 학생을 위한 기부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4. 1-1-1 캠페인 약정액 20억원 돌파

'1-1-1 캠페인' 이 약정액 20억원을 돌파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발전기금 모금 프로그램으로서 2012년 8월 기준으로 캠페인이 시작되기 2년만에 20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1-1-1 캠페인의 1-1-1은 동문 한 명이 매달 1만원씩을 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금된 발전기금은 모두 아주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며 현재 참여자들은 동문,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 등 신분이 다양하다. 안재환 총장은 "모든 기부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 5.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장학증서 수여식

9월 4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2012학년도 2학기에는 총 35명의 학생이 총 4,200만원 상당의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날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학생 35명과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동문들로 구성된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위원들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배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으며, 도네르 위원들은 앞으로 수혜학생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 6. '아주사랑 웨딩' 1호 커플 탄생

아주대학교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대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신선한 이벤트 '아주사랑 웨딩' 의 1호 커플이 탄생한다. 결혼 주인공은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99, 03학번 커플로 오는 10월 27일 아주대학교 그랜드홀(체육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아주사랑 웨딩을 이용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취향에 맞춰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넉넉한 주차공간과 한자리에서 예식-피로연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대학발전본부 031-219-2107)



# 아주사랑

##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2012.6~8)

### 교직원 교수

강현 / 권건보 / 김광윤 / 김도영 / 김민구 / 김병관 / 김서용 / 김영래 / 김호섭 / 김홍식 / 문혜원 / 민경도 / 박만규 / 박영동 / 백윤기 / 소병천 / 오동석 / 오승한 / 위영철 / 유재석 / 윤우일 / 윤태영 / 이교범 / 이법진 / 이승길 / 이완근 / 이원희 / 이윤제 / 이준섭 / 이진국 / 이현환 / 임한조 / 장정애 / 정태용 / 조지만 / 최진안 / 한상돈 / 한영수 / 한지영

### 교직원 직원

정영근 / 정말희 / 제갈훈 / 문병철 / 박승진 / 조경숙 / 박일분 / 신형섭 / 안영찬 / 양광모 / 진성호 / 이영진

### 의료원 교수

임기영 / 조기홍

### 의료원 직원

오연주 / 권중희 / 권춘련 / 안대근 / 이지현 / 최선정 / 황원선 / 아주대의료원속구회 / 김윤기 / 정해근

### 동문

강동길(행정00) / 강승현(경제05) / 강준형(산공85) / 강태규(행정00) / 고대우(경영78) / 고민수(행정89) / 김진수(대학원미디어) / 김동오(공공정책대학원) / 김숙영(영문80) / 김승범(경영90) / 김영애(행정96) / 김용태(심리90) / 김인재(사회복지석사10) / 김진욱(행정88) / 김태환(행정90) / 나창용(경영82) / 나충주(화공87) / 류승우(화공91) / 박성진(전산86) / 박순호(교통공학석사08) / 박유현(총학생회회장) / 박창주(기계00) / 백승홍(불문79) / 석호현(사회복지석사02) / 선준규(행정87) / 신두철(불문79) / 신재한(공공정책대학원) / 심인석(화공77) / 오말지(행정94) / 유광열(전자73) / 윤정훈(심리94) / 이광필(행정87) / 이기우(사회복지석사03) / 이문환(행정87) / 이삼구(경영대학원05) / 이영민(행정90) / 이영철(기계93) / 이종연(경영82) / 이혁준(기계92) / 임동하(행정88) / 장삼진(경영대학원07) / 정대원(공공정책대학원) / 정대원(공공정책대학원) / 차화열(일반행정석사09) / 최경덕(행정90) / 홍성길(경영83) / 홍재광(행정87) / (사)아주대학교동문장학회

### 일반

가치있는밥상 / 공공정책대학원16대원우회 / 돈황갈비 / 무교동유정낙지 / 미라클전자 /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 수누리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아주스크린 / 유니온플라워 / 이동환 / 이영이 / 이원준 / 이현석(HP포토카페) / 정명자제일씨계백반 / 지에스건설(주) / 태화장 / 한마음장학회(공공정책대학원) / 허수아비 / 현경 / 홈스테드아주대점 / (주)디지털헤럴드 / (재)아경장학재단 / (주)벤티코리아

### 학부모

김남숙 / 박춘자 / 안종길 / 전철구 / 정영호

## 1-1-1 캠페인 기부자(2012.6~8)

### 교직원 교수

감동근 / 고근하 / 광명준 / 광명숙 / 권순정 / 권오필 / 권익진 / 김경래 / 김도영 / 김동완 / 김문석 / 김민구 / 김상열 / 김수용 / 김순태 / 김승주 / 김영길 / 김영진 / 김유권 / 김재현 / 김현욱 / 김형수 / 김형택 / 김혜선 / 김효섭 / 김홍식 / 노민수 / 문승재 / 문은표 / 문창규 / 문혜원 / 민철기 / 박기동 / 박만규 / 박범 / 박성진 / 박승규 / 박영동 / 박용배 / 박용환 / 박재연 / 박정식 / 박태원 / 방승진 / 박윤기 / 범진환 / 서문호 / 서원희 / 서형택 / 손정훈 / 손태식 / 송용진 / 현호 / 안영환 / 엄동일 / 오영태 / 용세중 / 유재석 / 윤원식 / 윤현철 / 이교범 / 이기근 / 이병욱 / 이분열 / 이상국 / 이상민 / 이상신 / 이성엽 / 이숙향 / 이자성 / 이재의 / 이정원 / 이준섭 / 이지연 / 이체우 / 이철기 / 이평천 / 이형천 / 이해경 / 임석철 / 임재성 / 임재익 / 장중순 / 장혜영 / 전영목 / 전용호 / 정경훈 / 정기현 / 정이숙 / 정인하 / 정태선 / 조광국 / 조광순 / 조두진 / 조영호 / 조재형 / 조중열 / 조하연 / 차영선 / 최경희 / 최기연 / 최상돈 / 최수영 / 최윤호 / 최태영 / 최홍근 / 허영화 / 한호 / 함효준 / 현명선 / 홍성기

### 교직원 직원

강한현 / 고영식 / 고병수 / 고순재 / 구자영 / 권용금 / 권주연 / 김경숙 / 김관기 / 김규남 / 김근 / 김근태 / 김기문 / 김기현 / 김동석 / 김동현 / 김수영 / 김승권 / 김시천 / 김영기 / 김용순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은 / 김정호 / 김중현 / 김지혜A / 김형근 / 김형식 / 나기석 / 나영순 / 노동현 / 노학래 / 문병철 / 박민경 / 박봉기 / 박성숙 / 박일분 / 박재홍 / 박중채 / 박철균 / 배영환 / 송은주 / 송홍배 / 신경철 / 신정수 / 신정철 / 신형식 / 안선미 / 안순일 / 안영찬 / 안재환 / 양광모 / 양성모 / 양희창 / 오상경 / 오상탁 / 우용재 / 유경호 / 유시대 / 육현민 / 윤영화 / 윤진 / 윤혜정 / 이강준 / 이기홍 / 이도섭 / 이동렬 / 이명호 / 이명희 / 이미영 / 이미자 / 이병근 / 이석원 / 이선형 / 이성이 / 이수영 / 이영철 / 이영현 / 이은경 / 이은규 / 이인풍 / 이태재 / 이현규 / 이홍수 / 인정숙 / 임홍식 / 장세덕 / 장영수 / 정기훈 / 정세훈 / 정정문 / 정홍락 / 조경숙 / 조재현 / 조환 / 진명주 / 진성호 / 천순자 / 최성혜 / 최영호 / 최정영 / 최진구 / 최창기 / 최춘석 / 최희자 / 허택만 / 홍영수 / 황원복

### 의료원 교수

김병근 / 김재근 / 김춘자 / 김홍수 / 민병현 / 박기현 / 박지원 / 박진희 / 소의영 / 신준환 / 신호준 / 오영택 / 유문숙 / 유미애 / 유희석 / 이경중 / 이수진 / 이종찬 / 임기영 / 정연훈 / 정윤석 / 조기홍 / 조혜성 / 함형미

### 의료원 직원

고제상 / 권우식 / 권종희 / 권춘현 / 김영주 / 김인애 / 박범식 / 박수용 / 박인규 / 박정웅 / 백성희 / 백은주 / 소진식 / 송기정 / 송미숙 / 송석례 / 송수근 / 신종현 / 안대근 / 안현남 / 우효정 / 유등문 / 이영옥 / 이지현 / 이지현 / 임문채 / 임재수 / 정서진 / 정옥희 / 정해근 / 조재선 / 최규선 / 최선정 / 황원선

### 동문

갈원모 / 감정규(경영79) / 강경원(기계81) / 강경택(기계78) / 강기현(화생79) / 강두경(산정97) / 강명희(경영80) / 강병돈(산업85) / 강석배(경영83) / 강석환(화생81) / 강산구(화생79) / 강신호(전자74) / 강영모(경영대학원) / 강유환(화생80) / 강진모(물리88) / 강태원(전자77) / 강태현(전자75) / 강형호(기계89) / 강호출(재료84) / 강훈(화생76) / 강희석(전자84) / 강희진(경영86) / 경정현(경영84) / 경태영(경영80) / 고강현(기계82) / 고건웅(미디어03) / 고대권(산공81) / 고동식(전자80) / 고병각(산공96) / 고성민(환경85) / 고재만(전자80) / 고종섭(기계77) / 광정신(경영96) / 광창식(경영83) / 구병춘(기계81) / 구유희(기계87) / 구자현(기계76) / 구혜진(정컴89) / 권광우(경영90) / 권기형(전자80) / 권대진(환경81) / 권범윤(기계75) / 권영민(전자79) / 권오중(전자89) / 권우택(화공81) / 권재일(화학89) / 권주빈(전자89) / 권태인(기계81) / 권혁동(산공79) / 권혁면(화생75) / 금동순(기계78) / 김경현(전자75) / 김경희(기계79) / 김경희(불어81) / 김구용(기계81) / 김규봉(화생81) / 김규진(경영88) / 김근배(산공79) / 김금균(공학대학원03) / 김기섭(기계84) / 김기준(경영대학원05) / 김기창(경영대학원06) / 김기태(기계79) / 김기호(재료84) / 김길성(경영90) / 김남기(경영80) / 김대용(정컴86) / 김대용(화공96) / 김대홍(기계77) / 김동규(경영86) / 김동백(경영90) / 김동욱(전자86) / 김동욱(환경92) / 김두용(기계78) / 김두호(전자76) / 김명수(전자88) / 김명식(경제82) / 김문관(기계85) / 김미숙(인문91) / 김민(건축02) / 김민용(화공80) / 김범수(사회01) / 김병기(기계85) / 김병섭(전자81) / 김병주의학92) / 김병준(화공82) / 김봉렬(산공79) / 김봉준(경영98) / 김삼영(경제87) / 김상권(산공80) / 김상동(기계80) / 김상선(기계80) / 김석훈(경영78) / 김선구(화공90) / 김선기(전자79) / 김선태(기계78) / 김성만(ITS대학원06) / 김성우(화공79) / 김성원(기계96) / 김성준(식생76) / 김성현(전자78) / 김성희(기계77) / 김세득(영문79) / 김세연(산공79) / 김세철(전자78) / 김승암(화공75) / 김수근(영문79) / 김수기(기계78) / 김수철(화공73) / 김수현(환경95) / 김승규(영문80) / 김승만(전자82) / 김승진(ITS대학원) / 김승희(화공88) / 김시범(전자79) / 김시원(경영90) / 김양현(전자80) / 김연석(기계81) / 김연수(전자80) / 김영국 /

# 아주사랑

## 1-1-1 캠페인 기부자(2012.6~8)

김영무(산공90) / 김영서(산공86) / 김영주(기계79) / 김영중(산공79) / 김영중(전자80) / 김영찬(전자81) / 김영천(화공03) / 김옥진(화공79) / 김요용(환경81) / 김용갑(전자81) / 김용갑(전자81) / 김용경(전자91) / 김용규(기계80) / 김용국(산정03) / 김용기(기계80) / 김용운(전자80) / 김용태(심리90) / 김용호(기계77) / 김우원(경제70) / 김옥중(기계79) / 김원식(미디어03) / 김유복(기계80) / 김유신(전자83) / 김윤정(기계78) / 김윤태(기계83) / 김은호(산공77) / 김익환(화공79) / 김일수(전자1) / 김재정(기계79) / 김재호(산공78) / 김재호(기계81) / 김재환(전자82) / 김정권(경영80) / 김정한(전자81) / 김정한(환경84) / 김제경(화공77) / 김종길(기계79) / 김중남(화공79) / 김종범(경영80) / 김종선(화공81) / 김종수(경영91) / 김종우(전자81) / 김종원(기계80) / 김종준(전자79) / 김중철(영문90) / 김현(정컴96) / 김주봉(산공78) / 김주석(수학87) / 김주태(불어80) / 김주환(기계78) / 김준용(사학99) / 김중구(산공73) / 김지관(산공79) / 김지호(전자78) / 김지홍(기계78) / 김진명(정컴85) / 김진수(전자2) / 김진애(행성85) / 김진우(기계77) / 김진원(기계81) / 김진효(경영83) / 김찬우(전자81) / 김창규(재학생) / 김창균(전자80) / 김창욱(경영78) / 김창조(경영84) / 김창주(산공81) / 김창진(화생85) / 김창희(전자79) / 김철수(영문80) / 김철호(경영81) / 김태경(화생79) / 김태식(기계81) / 김태영(기계81) / 김태욱(전자80) / 김태훈(마케팅MBA06) / 김필기(전자81) / 김학철(자연96) / 김한복(기계76) / 김한규(기계79) / 김현(경제97) / 김현섭(경영91) / 김현준(정컴85) / 김형식(전자81) / 김형우(전자94) / 김홍석(경영78) / 김환욱(경영96) / 나중호(경영87) / 나창운(화공80) / 나창일(산공81) / 나태영(전자97) / 남광희(정보통신대학원) / 남궁규태(기계79) / 남상산(산공83) / 남승우(경영96) / 남승현(법학03) / 남현우 / 노천규(화공80) / 노희정(전자81) / 도정열(화공77) / 류상현(기계80) / 류원대(마케팅MBA08) / 류종규(행정04) / 류지상(전자86) / 류홍천(전자79) / 마명식(전자81) / 명재호(정컴87) / 문경식(화공80) / 문관수(전자79) / 문명식(기계89) / 문양현(일반) / 문연숙(인문79) / 문영준 / 문유건(산공82) / 문재경(기계86) / 문재호 / 문희복(전자81) / 민병갑(기계80) / 민병윤(경영80) / 민정기(경제84) / 민중식(경제04) / 민준영(기계78) / 박강서(일반) / 박건수(화공80) / 박건용(전자95) / 박경수(전산82) / 박경준(기계80) / 박경현(산공81) / 박광호(전자80) / 박관수(기계79) / 박근우(화공84) / 박기원(경제85) / 박기준(행정88) / 박낙원(경영대학원06) / 박대원(일반) / 박동애(불문80) / 박동애(불문80) / 박동진(경영대학원90) / 박명성(경영90) / 박문신(전자97) / 박문순(경영96) / 박문찬(경영95) / 박미희(경영80) / 박병우(영문79) / 박병윤(토목88) / 박병창(화공82) / 박상오(기계79) / 박상욱(화공88) / 박성준(기계78) / 박성환(기계80) / 박세규(산공79) / 박수진(화공80) / 박순식(산공87) / 박순웅(경영93) / 박안홍(기계79) / 박연희(경영04) / 박영동(화공79) / 박영복(전자79) / 박영석(화공80) / 박영애(산학대학원) / 박우경(불문80) / 박우영(교육대학원03) / 박원희(기계83) / 박원희(기계83) / 박유성(전산82) / 박인기(경제84) / 박재길(기계74) / 박정훈(전자79) / 박종경(화공81) / 박종기(화공80) / 박종석(산공87) / 박종용(산공78) / 박종원(경영78) / 박종윤(전자80) / 박주연(정컴96) / 박주원(화공80) / 박진호(전자83) / 박찬웅(전자76) / 박찬효(경영79) / 박창동(화생77) / 박철(산공80) / 박충림(불문80) / 박태동(기계79) / 박혁(전자85) / 박홍웅(전자79) / 박희창(불문84) / 박효수(기계81) / 박희진(화생79) / 박희태(기계73) / 반영무(기계77) / 반철희(경제84) / 방경원(전자80) / 방병천(전자80) / 방재만(화공77) / 배성준(전자80) / 배학원(기계80) / 백성우(정승인(환경81) / 백성천(산공81) / 백차현(전자99) / 변경수(화생78) / 변동진(경영84) / 변태훈(불문80) / 부춘성(화생82) / 서기준(경영03) / 서명원(화학87) / 서미화 / 서보건(경영97) / 서봉현(기계79) / 서상원(환경81) / 서성택(기계80) / 서수한(경영97) / 서영덕(생명98) / 서정현(기계78) / 서화덕(기계87) / 석광열(영문80) / 설횬득(기계78) / 손두현(산공79) / 손석상(기계80) / 손순환(화공80) / 손지영(경영01) / 송경수(경영85) / 송근섭(경영80) / 송기상(전자79) / 송명동(화공84) / 송병식(기계76) / 송성용 / 송승용(정컴87) / 송원준(불문80) / 송재규(산공85) / 송정수(건축99) / 송중식(불문83) / 송호영(전자95) / 신경우(경영78) / 신동주(경제95) / 신동철(환경89) / 신동혁(전산81) / 신동희(전자77) / 신두철(불문79) / 신명호(전산85) / 신병우(기계79) / 신상운(화공78) / 신영철(전자81) / 신용강(경영84) / 신용식(경영82) / 신의수(경제82) / 신정삼(기계80) / 신정진(기계85) / 신준호(화공88) / 신준호(경영83) / 신창효(법학88) / 신춘섭(화공73) / 신태창(화공79) / 신학수(산공79) / 신학순(산공79) / 신학순(산공79) / 신현주(환경99) / 신호연(전자80) / 심관용(경영84) / 심우성(경영84) / 심우영 / 심음섭(영문80) / 심인석(화공77) / 심정 / (전자84) / 안병식(기계74) / 안병열(전자88) / 안병철(경영81) / 안선호(기계81) / 안승태(기계85) / 안예환(산공79) / 안재성(기계94) / 안재영(산공80) / 안창영(전자81) / 안창준(기계80) / 안철순(기계77) / 안차규(기계80) / 안태훈(전자80) / 안호영(경영84) / 양광하(기계76) / 양국현(기계81) / 양문모(전산85) / 양미령(생명07) / 양병용(기계80) / 양성식(기계79) / 양승권(전자81) / 양승렬(기계79) / 양시영(기계81) / 양영재(경영93) / 양인식(전자78) / 양호진(산공81) / 양희성(기계86) / 어승규(기계79) / 어윤하(기계81) / 엄경이(영문84) / 엄민희(경제92) / 엄재득(산공79) / 엄정원(기계79) / 엄태문(기계78) / 염우영(국문95) / 오경윤(전산85) / 오귀석(전자78) / 오성원(경영95) / 오세태(경영88) / 오순애(경영대학원) / 오재영(기계81) / 오정락(전산81) / 오주영(화공80) / 오준서(재학생) / 오창준(불문80) / 오태승(산공81) / 오택원(화공79) / 용은희(사학95) / 우병주(기계82) / 우상혁(기계88) / 우신석(화공81) / 우지민(재학생) / 우창원(기계79) / 원윤희(기계76) / 원준남(전자79) / 원주경(환경86) / 원치호 / 위정식 / 유갑진(기계81) / 유광열(전자73) / 유기상(경제84) / 유영호(경영80) / 유병대(전자75) / 유상근(환경83) / 유상원(국문92) / 유성렬(전자77) / 유승선(전산87) / 유승수(경영84) / 유용식(전자80) / 유인선(전자80) / 유재권(경영81) / 유충상(기계76) / 유태근(화공80) / 유한석(기계78) / 유현준(일반) / 유호상(기계87) / 윤기원(화공78) / 윤석희(기계73) / 윤승원(전자82) / 윤영주(산정00) / 윤인수(경영97) / 윤재승 / 윤종엽(화공78) / 윤준근(경영84) / 윤춘기(기계84) / 윤황(국문83) / 은유진(정컴89) / 음광열(산학대학원) / 이강기(경영83) / 이강현(전자75) / 이건화(산학대학원91) / 이경섭(기계81) / 이경재(기계74) / 이경중(화공80) / 이경현(기계79) / 이계주(기계80) / 이광노(화생85) / 이광용(기계81) / 이광중(경영81) / 이광호(기계78) / 이규철(전자73) / 이근석(기계80) / 이금숙(불문79) / 이기욱 / 이기중 / 이대범(경영84) / 이동기(전자80) / 이동원(기계84) / 이동호(기계79) / 이만성(기계78) / 이명운(기계75) / 이문근(전산86) / 이미경(교육대학원06) / 이민경(경영01) / 이병규(전자73) / 이병선(경영79) / 이병엽(경영85) / 이병조(기계81) / 이병호(전자80) / 이상(산공81) / 이상성(경영89) / 이상영(환경05) / 이상원(전자80) / 이석현(경영대학원03) / 이성근(정컴96) / 이성식(전자77) / 이성식(국문83) / 이성식(기계74) / 이성윤(기계81) / 이성윤(산공81) / 이송호(경제84) / 이순태(화공73) / 이순태(화공73) / 이순태(기계81) / 이승근(기계80) /

이승제(화공76) / 이승현(전자82) / 이연강(전자79) / 이연희(불문79) / 이영구(산학대학원) / 이영국(기계81) / 이영범(경영86) / 이영석(산공79) / 이영일(경영80) / 이영호(전자80) / 이왕형(경영85) / 이용로(기계79) / 이용복(기계77) / 이용수(기계81) / 이용욱(경영81) / 이용운(화공80) / 이용재(전자78) / 이용훈 / 이우암(경영81) / 이윤갑(화공79) / 이윤호(화공89) / 이은성(불문79) / 이은형(사회92) / 이응정(경영87) / 이응표(불문79) / 이인규(환경81) / 이인호(산업대학원89) / 이일주(전산81) / 이재성(기계80) / 이재진(기계79) / 이재평(기계84) / 이정돈(기계78) / 이정삼(전자78) / 이정인(행정93) / 이정재(건축96) / 이정준(ITS대학원04) / 이정호(전자73) / 이정훈(전자78) / 이종연(경영82) / 이종용(기계81) / 이종원(전자79) / 이종주(기계80) / 이종훈(기계82) / 이주환(기계87) / 이준영(산업대학원05) / 이준은(화공80) / 이준호(법학93) / 이지삼(미디어1) / 이지원(재학생) / 이진선(일반) / 이창수(기계73) / 이창우(전산82) / 이창원(기계75) / 이창훈(기계87) / 이충균(경영대학원01) / 이충식(기계77) / 이태희(의학94) / 이하영(기계81) / 이한구(기계85) / 이한규(기계80) / 이한석(경영86) / 이항숙(경영81) / 이항희(영문96) / 이현명(화공77) / 이현삼(화공76) / 이현욱(법학98) / 이형무(기계77) / 이형익(영문79) / 이호근(전자79) / 이호중 / 이화수(화공재학생) / 이회영(경영대학원04) / 임경빈(산공81) / 임근찬(산공81) / 임동해(행정88) / 임명훈(경영94) / 임모환(일반) / 임민호(기계77) / 임병업(경제81) / 임생기(기계79) / 임석배(전산86) / 임성욱(기계89) / 임영무(전산81) / 임영준(기계74) / 임용백(경영81) / 임인재(화공83) / 임정혁(영문80) / 임종석(화공79) / 임종섭(영문79) / 임중환(전자80) / 임진규(산공79) / 임창규(전산82) / 임채중(기계93) / 임춘섭(기계77) / 임춘섭(기계79) / 임태규(기계) / 이 / 임평욱(화공80) / 임형재(점점87) / 장기순(기계74) / 장병정(경제99) / 장삼만(전자80) / 장산규(화공79) / 장성현(기계86) / 장용석(화공85) / 장용호(산공80) / 장준교 / 장준복(경영91) / 장준석(전자79) / 장직순(환경81) / 장호(기계80) / 장병수(전산85) / 전성일(화공84) / 전성환(전자80) / 전승민(전산87) / 전재현(화공79) / 전지영(환경85) / 전진수(전자75) / 전창규(전자04) / 전현수(영문82) / 정규범(전자80) / 정규해(환경02) / 정기정(화공73) / 정동민(경제82) / 정동열(전산81) / 정미숙(국문86) / 정민호(화공82) / 정방근(전자79) / 정방근(전자79) / 정성현(산공79) / 정승화(경영78) / 정연광(전자79) / 정연호(생물81) / 정왕진(영문79) / 정요열(생명11) / 정운규(기계80) / 정일구(일반) / 정점래(일반) / 정중권(화공03) / 정준모(생물90) / 정창경(영문79) / 정태화(생물81) / 정해준(화공79) / 정현웅(경제99) / 정혜원(경영80) / 정해인(E-비즈06) / 정희교(화공78) / 정희진(전자83) / 조길훈(기계79) / 조경제(경영84) / 조규태(경영86) / 조길원(화공79) / 조동식(경영84) / 조두현(전자80) / 조무창(경영대학원) / 조문준(행정86) / 조봉원(기계98) / 조성만(산업대학원03) / 조성태(영문80) / 조연제(전자79) / 조영록(기계81) / 조영섭(법학87) / 조영호(전자87) / 조원익(경영85) / 조윤진(영문80) / 조익수(기계79) / 조종순(기계80) / 조중환(전자97) / 조총희(전자74) / 조해성(화공78) / 조형규(기계75) / 주동준(영문80) / 주민규(점점96) / 주왕원(기계76) / 주필상(전자79) / 지승규(일반) / 지승렬 / 지영교(기계80) / 지훈수(산업대학원09) / 진동환(기계85) / 진명호(전자77) / 차상훈(산업대학원07) / 차환윤(화공80) / 채상욱(건축97) / 채일(불문80) / 최근배(화공73) / 최기원(전자81) / 최기혁(기계80) / 최도선(화생78) / 최만조(기계81) / 최문규(전자75) / 최병국(전자80) / 최병학(기계77) / 최승달(산업대학원07) / 최승순(불문84) / 최신영(산정98) / 최영두(기계90) / 최영락(기계87) / 최영수(기계78) / 최용호(경영80) / 최원덕(환경81) / 최응선(기계78) / 최재승(경제95) / 최재은(재학생) / 최종욱(기계78) / 최중성(환경81) / 최중원(경제84) / 최희선(경영81) / 추병윤(전자80) / 표준상(전산82) / 환관희(기계78) / 한봉훈(산공86) / 한상준(기계77) / 한상철(영문81) / 한석근(기계) / 한영석(경영82) / 한윤희(기계79) / 한중권(경영80) / 한진희(화공84) / 한태규(전자79) / 한효식(화공82) / 함건주(산공94) / 함경숙(생물86) / 함동일(산학대학원) / 허기영(산업대학원06) / 허려화(에너지센터) / 허석수(기계84) / 허성철(수학93) / 현남주 / 현명주(공공정책대학원) / 홍권선(환경86) / 흥기택(화공78) / 흥대의(경영79) / 흥덕표(경영79) / 흥민철(전자80) / 흥범준(경영96) / 흥봉수(수학85) / 흥석교(평생교육원) / 흥성표(기계78) / 흥성수(산공85) / 흥세경(전자78) / 흥수정(응용12) / 흥순갑(기계78) / 흥지훈(점점86) / 황교민(화공80) / 황금철(기계87) / 황덕모(경영79) / 황동선(화공79) / 황두성(전자89) / 황민숙(불문79) / 황민하(경영82) / 황병철(전자78) / 황선영(기계81) / 황수연(화공04) / 황안일(산공86) / 황우식(기계93) / 황인국(산공79) / 황정환(점점87) / 황창섭(경영94) / 황충국(경영78) / 황태원(재학생)

**일반**

권우식 / 김인애 / 박정웅 / 박종춘 / 소진식 / 송석례 / 안혜영(김충중) / 오성호 / 이미영 / 임재수 / 정우건설 / 조중용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인파크 / ㈜한국푸엔코 / 최병용 / 현 수 / 홍혜린 / (주)경봉 / (주)굿네트웍 / (주)대영엔텍 / (주)미래공조 / (주)보광토탈이엔지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에이피피 / (주)우진 / 트공업 / (주)유티정보 / (주)이포넷 / (주)제이티

**학부모**

강명구 / 강명덕 / 강명철 / 강복선 / 강석정 / 강석식 / 강승규 / 강신희 / 강원길 / 강인희 / 강정교 / 강중우 / 강준 / 강중수 / 강철 / 강호식 / 강호철 / 강환규 / 고희환 / 고통현 / 고양순 / 고은영 / 고은화 / 공경순 / 공영주 / 광정 / 광정순 / 광정화 / 구본춘 / 구지홍 / 구형자 / 구효숙 / 국영호 / 권경섭 / 권성환 / 권순자 / 권영자 / 권오용 / 권윤 / 권정의 / 권경석 / 김경원 / 김경은 / 김경주 / 김경혜 / 김광수 / 김광일 / 김광자 / 김규태 / 김근인 / 김 / 제 / 김기영 / 김기현 / 김기환 / 김나경 / 김대우 / 김대용 / 김덕영 / 김도원 / 김동기 / 김동진 / 김동진 / 김명임 / 김명호 / 김문현 / 김미옥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영 / 김병동 / 김병수 / 김복근 / 김복식 / 김부자 / 김상두 / 김상만 / 김석중 / 김선관 / 김선규 / 김선미 / 김선태 / 김성숙 / 김성순 / 김성실 / 김성태 / 김수주 / 김숙희 / 김숙희 / 김 / 북 / 김승석 / 김승애 / 김신욱 / 김애숙 / 김애신 / 김아주 / 김양하 / 김연화 / 김영관 / 김영기 / 김영선 / 김영숙 / 김영희 / 김용익 / 김용실 /

# 아주사랑

## 1-1-1 캠페인 기부자(2012.6~8)

김용정 / 김용주 / 김은석 / 김은숙 / 김은숙 / 김은실 / 김은희 / 김응경 / 김익현 / 김재용 / 김재학 / 김정국 / 김정수 / 김정심 / 김정자 / 김정환 / 김중구 / 김중국 / 김중산 / 김중숙 / 김중철 / 김지수 / 김지영 / 김진곤 / 김찬호 / 김창식 / 김창현 / 김창호 / 김춘재 / 김태안 / 김태연 / 김태희 / 김풍환 / 김필교 / 김한규 / 김현돈 / 김현희 / 김형선 / 김형성 / 김형준 / 김혜영 / 김홍광 / 김홍순 / 김효상 / 김홍용 / 김희 / 김희순 / 나귀연 / 나금옥 / 나혜란 / 남상능 / 남영실 / 남현모 / 노기열 / 노농길 / 노순일 / 도성재 / 류무자 / 류 / 현 / 류호길 / 목병균 / 문명예 / 문원길 / 문호진 / 민병구 / 민병도 / 민오경 / 박경희 / 박계선 / 박기표 / 박노균 / 박능호 / 박민진 / 박면신 / 박명옥 / 박명희 / 박무돈 / 박미도 / 박미랑 / 박미숙 / 박병훈 / 박상기 / 박상희 / 박성배 / 박성욱 / 박순례 / 박승모 / 박승우 / 박연옥 / 박영근 / 박영도 / 박영만 / 박영미 / 박영식 / 박영신 / 박용범 / 박우하 / 박은녀 / 박인숙 / 박일임 / 박정원 / 박중무 / 박중희 / 박중현 / 박준인 / 박중수 / 박찬욱 / 박판구 / 박평우 / 박현숙 / 박현실 / 박후상 / 방성주 / 방현천 / 배미애 / 배연옥 / 백남태 / 백병하 / 변희진 / 봉금희 / 서국동 / 서미 / 서미영 / 서병수 / 서용재 / 서유내 / 선영옥 / 설광수 / 성금숙 / 성기희 / 성대중 / 성미옥 / 성미혜 / 성선희 / 성 / 중 / 성인선 / 성점수 / 소귀선 / 소지은 / 손난향 / 손문성 / 손보익 / 손재영 / 손정제 / 손호순 / 송경수 / 송경희 / 송명중 / 송미영 / 송병원 / 송선숙 / 송수훈 / 송순임 / 송승호 / 송영옥 / 송윤희 / 송정미 / 송정석 / 송정 / 송희상 / 신경애 / 신동일 / 신상기 / 신순옥 / 신영순 / 신옥 / 신은숙 / 안규세 / 안남옥 / 안명식 / 안병립 / 안병일 / 안영선 / 안익훈 / 안정열 / 안혜영 / 양기천 / 양승석 / 양원석 / 양윤정 / 양정안 / 양희문 / 양희연 / 어경임 / 연태호 / 여각동 / 여철현 / 염병국 / 오건석 / 오금복 / 오대지 / 오수연 / 오영숙 / 오윤연 / 오윤영 / 오정애 / 오주심 / 오창석 / 오태근 / 오희택 / 오혜경 / 왕남원 / 왕남원 / 왕영숙 / 우동석 / 우은경 / 우춘심 / 원용석 / 위홍환 / 유강하 / 유권중 / 유동복 / 유영심 / 유미경 / 유보형 / 유영해 / 유옥순 / 유우근 / 유인표 / 유창순 / 유혜주 / 유효호 / 윤광석 / 윤민경 / 윤상순 / 윤석열 / 윤성희 / 윤성택 / 윤성희 / 윤용식 / 윤인명 / 윤임중 / 윤주용 / 윤하경 / 윤혜경 / 은미희 / 이강숙 / 이경규 / 이경수 / 이계상 / 이광미 / 이광희 / 이규백 / 이규환 / 이기섭 / 이기훈 / 이기훈 / 이통규 / 이동규 / 이태래 / 이동성 / 이동열 / 이만기 / 이면 / 이명자 / 이명주 / 이문화 / 이미자 / 이보영 / 이보형 / 이복실 / 이봉석 / 이부영 / 이상근 / 이상규 / 이상근 / 이상순 / 이상철 / 이선경 / 이상숙 / 이상우 / 이성희 / 이성희 / 이상형 / 이순덕 / 이순아 / 이순이 / 이순택 / 이승미 / 이승희 / 이양희 / 이양희 / 이연숙 / 이연순 / 이영경 / 이영규 / 이영미 / 이영수 / 이영학 / 이육자 / 이원숙 / 이윤공 / 이우영 / 이윤희 / 이은영 / 이은희 / 이은주 / 이은희 / 이은희 / 이인규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재려 / 이재순 / 이재성 / 이재양 / 이정순 / 이정옥 / 이종근 / 이종서 / 이 / 우 / 이진희 / 이진희 / 이춘형 / 이태원 / 이태호 / 이한록 / 이한영 / 이현택 / 이현선 / 이형표 / 이혜선 / 이홍주 / 이화 / 이효순 / 이효숙 / 이희경 / 이희관 / 임금자 / 임기한 / 임동주 / 임봉길 / 임서영 / 임선옥 / 임양미 / 임윤희 / 임인섭 / 임인숙 / 임중규 / 임중경 / 임찬진 / 임채숙 / 임화선 / 장경남 / 장광열 / 장도영 / 장병윤 / 장석일 / 장 / 영 / 장양남 / 장용창 / 장은영 / 장흥원 / 전도수 / 전두수 / 전상수 / 전용현 / 전우석 / 전정조 / 전택일 / 전현숙 / 정구영 / 정구창 / 정균희 / 정남오 / 정동호 / 정명신 / 정문기 / 정복길 / 정성윤 / 정성희 / 정영민 / 정양원 / 정 / 국 / 정연영 / 정영옥 / 정영옥 / 정용희 / 정우연 / 정의대 / 정인수 / 정재기 / 정재두 / 정재명 / 정지순 / 정정용 / 정현숙 / 정혜숙 / 정희자 / 조강래 / 조규영 / 조명구 / 조명순 / 조병환 / 조성철 / 조영석 / 조원호 / 조용백 / 조원 / 조익환 / 조재용 / 조재환 / 조정숙 / 조선선 / 조한식 / 조현옥 / 조희형 / 주기영 / 주영천 / 진경년 / 진광선 / 차 / 차 / 차미희 / 차선희 / 차영주 / 채영호 / 천영길 / 천승락 / 천현희 / 천행연 / 천희수 / 최광수 / 최근호 / 최금숙 / 최만중 / 최명규 / 최미영 / 최성범 / 최수도 / 최순식 / 최승권 / 최영길 / 최영실 / 최옥분 / 최유미 / 최윤영 / 최윤 / 최인수 / 최인자 / 최일근 / 최재필 / 최정은 / 최중우 / 최창식 / 최충현 / 최학철 / 최현아 / 최현욱 / 최현우 / 편 / 필 / 편홍일 / 표은영 / 한경희 / 한광남 / 한균희 / 한다예 / 한성희 / 한영엽 / 한은수 / 한인선 / 한정숙 / 한중진 / 한진숙 / 한진희 / 한창근 / 함기애 / 함형이 / 허경옥 / 허남걸 / 허인영 / 허호우 / 현희숙 / 홍남진 / 홍영옥 / 홍원 / 홍은경 / 홍재철 / 홍진선 / 황교숙 / 황기순 / 황만영 / 황명수 / 황선관 / 황순연

## 아경장학금 기부자(2012.6~8)

조영호(경영대 교수) / 박호환(경영대학원장) / 한재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아경장학재단 명예이사장)) / 백성기(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 최성근(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권안식(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김민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 김형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아경장학재단 부이사장)) / 성열학(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안삼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윤호정(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이태영(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7기) / 최근해(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 이종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3기) / 박한명(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7기) / 문정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19기) / 전병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5기) / 이의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성시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정기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8기) / 김강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박대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이학봉(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김윤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1기) / 김경배(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전은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3기) / 최고48기 동창회(회장 김경찬)일동(경영대학원 최고48기 동창회) / mc46기 동창회(회장 김희순)일동(경영대학원 mc46기 동창회) / 박주연(경영대학원총동문회 간사) / 김정임(아경장학재단 간사)

# 1명의 선배가 1달에 1만씩 기부하는 1-1-1캠페인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편리해진 방법으로  
후배사랑을 보여주세요.”

## 감동을 더하는 무한 아주사랑

차곡차곡 쌓을수록 커져가는 아주인의 무한감동 1-1-1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1-1-1 캠페인으로 모금한 장학금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 1-1-1 캠페인 참여하시는 방법

- 1.온라인약정** 학교 홈페이지에서 1-1-1캠페인 배너 클릭후 약정서 작성
  - 2.이메일/팩스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
  - 3.전화문의약정** 하단의 대학발전본부로 전화문의하여 약정서 작성
- \* 위의 방법으로 약정하시면 1달에 1번, 1만원씩 선배님 통장에서 CMS 자동결제 됩니다

### 기부금 용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